

제주도 큰곳의 구조적 원형 및 문화사적 位相

이 수 자*

I. 머리 말

무속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실체로 남아있지만, 원래 많은 방면에서 우리문화를 형성·배태시킨 모태라는 점에 보다 큰 의의가 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문화의 기저를 밝히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무속을 깊이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전래되어 오는 사실에 따르면 무속에는 열두거리 큰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시하면 무속의 총체이자 본질은 바로 열두거리의 큰곳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의 실체가 규명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무속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큰곳을 연구하는 의의는 이것이 무속제외라는 점에서 볼 때, 일단 앞서의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에 의해서도 이것은 다시 연구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첫째, 전세계에 보편하는 신화들 중에는 천지창조신화·인간의 기원신화·死의 기원신화(사후세계에 관한 신화 포함)·농경 및 불(火)의 기원신화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¹⁾,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에게는 이런 신화들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제주도의 큰곳속에 있는 신화들 중에는 이와 같이 천지창조(생)를 알려 주거나, 인간의 탄생이나 사후세계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또는 농경기원을 알려주는 내용의 신화들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제주도 큰곳내의 신화들이 가진 位相이 올바르게 밝혀지기

* 이화여자대학교(국어국문학과) 강사

1) 大林太良(1966), 「神話學入門」(일본, 中央公論社) 참조.

왕빈(1980), 「신화학입문」(서울, 금란출판사) 참조.

만 한다면, 우리민족도 세계에 보편하는 신화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때문에 이들은 중시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신화는 전설이나 민담, 그리고 소설 등의 원천적 자재 노릇을 한다고 한다.²⁾ 이점을 중시하면, 구비문학을 포함하여 일련의 서사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신화가 연구의 우선적인 관심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문학의 소재적 원천을 탐구하고, 나아가서는 문학내적 요소인 서사소들을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토에서는 제주도의 큰굿내에 나오는 신화들의 내용이 무가속에 잔존해 있거나, 아니면 전설이나 민담 또는 고대소설로 변모되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곧 같은 소재의 내용이 장르를 달리하면서 제주도와 본토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화가 타장르의 소재적 원천이 된다는 점을 중시하면, 똑같은 소재가 신화로 존재하고 있는 제주도의 그것은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들 신화를 포함하고 있는 제주도의 큰굿 역시 새롭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째, 신화란 原始의 시대에 이루어진 신들의 행위에 비롯하여 현존하는 자연환경의 제현상이나 인간사회의 의례, 또는 모든 인간행동의 범례를 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³⁾ 따라서 신화속에는 반드시 창세의 원리 및 수많은 儀式的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큰굿 내에서 읊어지는 신화속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⁴⁾ 이것은

2) Thomas A. Sebeok(1958), 『Myth a Symposium』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25-35.

김영규(1971),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서울, 일조각) pp. 6-10.

조동일(1978), “신화의 유산과 그 변모과정”, 『우리문학과 의 만남』(서울, 흥성사) p. 87.

3) 멜시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역)(1982), (대구, 형설출판사) p. 444 참조.

大林太良(1966), 앞의 책, pp. 48-50.

왕빈(1980), 앞의 책 p. 18, p. 44 참조.

4) 예를 들면, 초감제라는 의식에서 읊어지는 제의언어 속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생겨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해와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

곧 이들 신화가 아직도 신화의 본래적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들 신화 및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제주도의 큰굿 역시 그만큼 古形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토에서는 <제석본풀이>라는 신화로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무속신화가 제주도의 큰굿내에서는 <초공본풀이>라는 신화로 불리우고 있다.⁵⁾ 이것은 제주도의 큰굿 및 여기에 나오는 신화가 제주도에서 자연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토에서 이입·수용된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들이 본토의 그것과 상관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고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섬에는 일반적으로 고문화가 잔존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큰굿은 어쩌면 우리민족이 그 옛날 보유했었다는 큰굿과 관련된 매우 고형의 문화가 섬지방에 잔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 큰굿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문화를 형성한 모태적 기반을 찾을 수 있다는 의의도 겸할 수 있기에 이것은 다시 고찰되어 그 구체적 성격이나 의의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면,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큰굿 및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을 연구해 보는 의의는 바로 문학적으로는 소재적 원천을 탐색하고, 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 고문화의 한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문화를 형성·배태한 기저를 밝혀 볼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큰굿을 증시하고, 이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도 큰굿의 구조적이고도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그 위상과 의의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어, 본고는 큰굿의 실연양상을 증시하기 보다는 祭儀

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으며(法之法), 각각의 무속신화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여 ○○법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의식기원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5) 서대석(1980), “제석본풀이연구” 「한국무가의 연구」(서울, 문학사상사) 이것은 서대석 교수의 “제석본풀이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를 통해 확인된 바 있는데, 이 연구는 서사무가, 즉 무속신화가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밝혔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지만, 이외에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무속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힌 점도 매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言語⁶⁾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이것은 제의의 본질은 실연양상보다 제의 언어 자체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화를 살아있는 전승물로 소유하고 있던 시대와 그 문화적 잔존속에는 많은 민족이 말을 생명을 가지며 무한한 힘을 가진 것으로 믿고 있었다.⁷⁾ 제주도의 큰굿은 심방이 하는 말을 중심으로 채록해 놓은 자료를 보아도 어느 정도 그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큰굿집단 역시 말이 가지는 생명력과 주술성을 믿고 이것에 의지하여 제의를 행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때문에 제주도 큰굿을 연구할 때는 먼저 제의언어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 무속, 그 중에서도 특히 큰굿의 본질과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의 위상을 밝혀 보고자 함에 있어 본고가 중시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赤松智城・秋葉隆(1937), 「朝鮮巫俗の研究」上, pp. 339-543.

[2] 진성기(1968), 「南國의 巫歌」

[3] 장주근(1973), 「韓國의 民間信仰」자료편

[4]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서울, 신구문화사)

제주도의 무속은 일찍부터 그 중요도가 인식되어 무속신화 자료 역시 비교적 이른시기부터 채록・보고되었다. 신화란 제의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제의와 연결되어 설명・연구되어질 때 신화는 보다 분명하게 그 본질적 성격이 규명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른시기에 채록된 많은 신화 자료들은 대부분 신화 그 자체만을 기록한 것이어서, 이들 신화들이 실제 큰굿이라는 제의속에서 어떻게 연관되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알수

6) 예를 들면,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들(제사의 순서를 다음으로 넘긴다는 말 및 초감제, 해심곡, 풀이류의 말들을 포함)과 본풀이, 그리고 놀이에서 말해지는 말, 비님을 읊는 것 등등 모두를 포함한다.

7) 왕빈(1980), 앞의 책, p. 69.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바 천지만물이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및 고대 인도의 바라문교 문헌인 샤타파타브라아마나에 나오는 것으로 최고신인 프라자파티가 세마디 '말'로서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외에도 고대 이집트의 멘피스 지방에 전하는 창조신화 내용, 포리네시아 창조신화 등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전부 말이 가진 창조력을 통해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모두 말이 갖는 생명력과 주술력이 밀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없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책 중, 네번째인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이하 「사전」이라 칭함)은 의례의 진행에 따라 자료가 채록·정리된 것이어서, 신화가 제의속에서 갖는 위상 및 큰굿의 내용을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하며 연구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보조로 이용하면서⁸⁾ 논지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현행되고 있는 큰굿의 제차순서를 조금 바꾸어 구성원리에 따른 순서로 바꾸어 보겠다. 즉 내재적인 구성원리에 따라 큰굿의 개별의례의 순서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큰굿 열두거리의 제의적 성격을 살펴보고, Ⅳ장에서는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를 중심으로 여기에 나타난 구조적 의미를 고찰해 본다. V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재구해 본 큰굿 및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 큰굿의 문화사적 위상을 추론해 보기로 하겠다.

Ⅱ. 큰굿의 구조적 원형

제주도 큰굿은 의식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원래는 어떤 체제 아래 형성되었고 또 의례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하는 제주도 큰굿을 채록해 놓은 자료인 「사전」의 내용을 보면, 큰굿을 이루는 개별의례의 순서에는 어떤 체계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 제의의 원래적 실상은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을 통해서는 큰굿이 민중과 함께 호흡하며 전승되어 오는 동안 원래적 모습으로부터 약간 변모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큰굿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면서 이와 같은 변모상을 토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학문상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원래의 제모습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며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주도 큰굿의 내용이나 진행되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굿은 원래 어떤 체제적인 구조적 원리

8) 이하 [1] 「조선무속의 연구」는 「조선」으로,

[2] 「남국의 무가」는 「남국」으로,

[3] 「한국의 민간신앙」은 「민간」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하에서 형성되었고, 또 그런 체계하에서 의식이 행해졌었을 듯한 모습이 엿보인다. 길고긴 세월을 통해 변모를 거듭하는 중에서도 이나마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이 가지는 보수성 및 고정성,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는 섬이라는 특수성 및 제주도 무속이 몸담고 있는 제반 현실적 상황 때문에⁹⁾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에는 이러한 내재적인 구조적 원리를 중시해서 원래적 모습이었다고 생각되는 큰굿의 순서를 재구해 보기로 하겠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에서는 먼저 큰굿에서 불러우는 신화들, 즉 본풀이의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고, 2에서는 큰굿의 맨처음 의식인 초감제의 <젯트리았혀살려움>에서 옮겨지는 신의 종류와 위계질서를 살펴본다. 그리고 3에서는 2의 결과에다 1의 결론을 대입하여 큰굿 개별의례의 순서를 추출한다.

1. 본풀이의 기능과 종류

굿이란 인간사의 모든 일을 각각의 신들이 창조했고 또 관장한다고 믿고서, 그 신들을 불러 대접하고 그들에게 인간사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일종의 의례이다. 무속은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기에 다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이들 사이를 심방(무당)이라는 존재가 매개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현존하는 여타의 종교형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큰굿이 열두거리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말해지고 있는데, 이 때의 열두거리란 각각 다른 대상신을 모신 개별의례가 열두개 있었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독립된 제차에서 모셔지는 대상신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희망하는 일들, 즉 다산이나 건강, 행복, 장수, 그리고 농사의 풍년 등등을 관장하는 신들이었을 것임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큰굿과 같은 이러한 제의를 행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9) 현용준(1986), 「제주도 무속 연구」(서울, 집문당)를 참고하면 제주도 무속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V장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것은 바로 제의를 행하는 장소로의 신의 나타남(顯現)일 것이다. 제의의 대상이 되는 신들은 멀리 있기 보다는 되도록이면 인간이 소원하는 바를 기원하고 있는 켓상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의집단은 이런 까닭에, 신들을 켓상앞에 현현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창안해 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제의에 있어 신들을 가까이에 현현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들의 내력담인 제대로된 신화들(제주도의 무속에서는 신화를 본풀이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신화라는 용어대신 본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겠다)을 창조하고 그것을 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신화가 가지는 제의속에서의 기능은 여러가지가 있는데¹⁰⁾, 예를 들면 신들의 근본내력, 행적, 성격, 연원 등을 해석·설명해 주는 기능이 있다. 동시에 신들로 하여금 축원하려는 사항을 잘들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러한 일들을 유리하게 지배 처리한 神의 과거 행적을 신화를 통해 명확히 증거대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본풀이는 그것을 구송함으로써, 신을 강림시켜서 제의되는 제청이나 제상으로 현현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다.¹¹⁾ 이것은 큰굿제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본풀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큰굿의 개별의례가 각각의 대상신에 대한 제향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 제의에서는 이들 신들을 각각 제청으로 현현시키고 이들에게 인간사 원하는 일을 기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큰굿의 개별의례 속에는 이러한 대상신에 대한 본풀이(신화)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여기에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풀이의 종류와 개별의례의 종류가 이처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큰굿의 원래적 모습을 재구해 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현행되고 있는 큰굿내에서 읊어지고 있는 본풀이의 종류와 그

10) 장주근(1975), 「서사무가와 민담」 「이화 30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및 현 용준(1980), 「사전」 p. 875 참조.

11) 장주근(1975), 앞의 글, pp. 270-1에는 제주도 무가를 채록하는 과정에 있었던 바, 본풀이가 가지는 이러한 기능을 보여주는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성격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의거, 앞서의 네자료에 나타난 바 큰굿내에서 불리웠을 본풀이들, 곧 신화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¹²⁾

여러 자료에 대체로 공통하는 것은 1) 천지왕본풀이, 2) 생불할당본풀이(마누라본풀이 포함) 3) 초공본풀이 4) 이공본풀이 5) 삼공본풀이 6) 강님차사본풀이 7) 세경본풀이 8) 문전본풀이 9) 칠성본풀이 10) 스만이본풀이(맹감본풀이) 11) 지장본풀이 등이 있다. 그리고 이외에 각 자료에 하나씩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신화로는 12) 본향본풀이 13) 서귀본향당본해 14) 토산당본해 15) 군웅본관, 군웅본해, 군웅본풀이 16) 세민황제본해 17) 원천강본해 18) 황재상본해 등이 있다.

여러 자료에 공통하는 본풀이(1)~11)들은 큰굿이라는 제의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불리웠던 신화들일 수 있다. 이들의 내용은 다음장에서 큰굿 개별의례의 성격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여기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천지왕본풀이

하늘의 천지왕은 꿈속에서 해와 달의 수를 조정할 아들을 낳을 꿈을 꾸고 지상으로 내려와 부인을 얻어 잉태를 시킨 후 하늘로 돌아간다. 후에 태어난 쌍둥이 두아들은 하늘에 올라 부친을 만나 활을 받고, 형인 대별왕은 두개의 해 중 뒤의 것을 쏘아 동쪽의 셋별을 만들고, 동생인 소별왕은 두개의 달 중 뒤쪽의 것을 쏘아 서쪽의 가는 못별들을 만든다. 이렇게 하여 하늘에는 해와 달이 오늘날처럼 하나씩만 남게 된 것이다. 형제는 이어서 이승과 저승차지시합[수수께끼 및 꽃피우기시합]을 벌여 동생은 이승을, 형은 저승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동생이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승은 죄가 많은 세상이 되었다.

2) 생불할당본풀이(마누라본풀이 포함)

불효한 동해용왕다님애기는 인간생불왕이나 하도록 명령받고 부모로부터

12) 논의되는 과정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拙稿(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pp. 19-21 참조.

내쫓김을 당하나 아이를 낳게할 줄 몰라 임박사 부인을 죽게 만든다. 임박사의 상소에 맹진국따님애기가 생불왕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생불왕임을 다투다가 결국 하늘에 올라 꽃피우기시함을 벌이고, 여기에서 번성꽃을 피운 맹진국따님애기는 생불왕이 되고, 반면에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아이들의 질병을 불터 일으키는 저승할망이 된다. 생불왕은 서천꽃밭이라고 하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꽃들이 피어있는 꽃밭을 만들고 여기에서 생불꽃을 따가지고 다니며 아이들을 점지·잉태시키고 양육을 보살핀다. 생불할망은 마마신 대별상신에게 아이들로 하여금 마마를 약하게 앓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육만 먹는다. 그리하여 복수를 위해 마마신의 부인(혹은 며느리)에게 잉태를 점지한 후 행복시키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마마신으로부터 마마를 약하게 해주겠다는 항복을 받고 해산을 시켜준다.

3) 초공본풀이

천하임정국대감과 지하김진국부인은 나이가 많아도 슬하에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불당에서 원불수룩을 드리고 딸을 낳는다. 딸이 열다섯살이 되었을 때 부부는 벼슬살러 떠나고, 황금산 도단땅의 주자대선생은 이집에 들러 딸에게 잉태를 시키고 떠나간다. 후에 태어난 쌍둥이 세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무악기를 만들고 무법을 배운후 고향을 하며 삼천석제석궁에 갇힌 어머니를 구해내는데, 이 어머니는 나중에 금법당에서 무구와 삼탄祭器를 지키는 당의 신이 된다.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오던 유정승따님애기는 이곳에 와 그녀와 어머님을 맺고 무기구와 제기를 빌어 전새남굿을 행하여, 죽어가는 아랫마을 장자집의 딸을 살려낸다.

4) 이공본풀이

아래·윗마을에 사는 이웃집이 서로 자식이 없어 걱정하다가 불당에다 원불수룩을 드린 후 각각 아들·딸을 낳았는데, 이들은 구덕혼사를 지냈다가 열다섯에 결혼한다. 남편인 사라도령이 꽃감관을 살려 서천꽃밭에 가게 되자 부인도 함께 따라 나서지만 잉태한 몸이라 더가지 못하고 증도에 장자집에 종으로 팔려 남아 있다. 부인이 낳은 아들 신산만산할락궁이가 열다섯살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떠나자, 탐욕스런 장자는 부인을

죽인다. 할락궁이는 아버지로부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레멜망악심꽃과 죽은 목숨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도환생꽃을 얻어와, 어머니를 죽인 장자 집식구를 모두 죽이고(세째딸은 제외), 어머니를 살려 함께 서천꽃밭으로 간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된다.

5) 삼공본풀이

가난한 거지였던 두사람이 결혼후 딸을 셋 낳았는데, 세째딸 가문장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집은 부자가 되기 시작한다. 어느날 아버지가 세 딸을 불러놓고 누구덕에 먹고 사는가를 묻자, 세째딸만은 자기의 배꼽밑 선그릇 줄 덕분에 먹고 산다고 한다. 화가 난 아버지는 이딸을 내쫓았는데, 이후 그는 안맹하고 다시 거지가 된다. 세째마통이와 결혼한 가문장아기는 마파던 구덩이에서 금·은을 캐내어 큰 부자가 된 후 부모를 만나기 위해 절인 잔치를 베푸는데, 안맹했던 부모는 앞에 있는 사람이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눈을 뜬다.

6) 강림차사본풀이

동경국버무국왕의 세형제가 단명을 예언받고 절에 들어가 3년간을 공양드리나, 어느날 문득 집에 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 공양을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도중 과양생이집에 들렀다가 모두 죽임을 당한다. 과양생이부인은 이들의 변신모습인 구슬을 먹고 잉태하여 쌍둥이 세아들을 낳으나, 성장한 어느날 갑자기 죽게 되자 억울함을 원에게 상소한다. 원님은 강님을 뽑아 저승으로 보내 염라왕을 잡아오게 하였는데, 후에 이승에 온 염라왕은 과양생이 부인의 죄를 밝히고 동경국버무국왕의 세아들을 살려서 돌려 보낸다. 그리고 강님의 용맹성을 탐내어 그를 저승으로 데려가 저승차사로 삼는다. 저승적패지를 가져오던 까마귀의 실수로 인간은 나이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죽게 되었고, 강님은 삼천년을 산 동방삭을 저승으로 잡아간 공업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저승차사로 들어서게 되었다.

강림차사본풀이는 이승적 존재였던 강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하여 저승차사가 되었는데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승차사란 이승에서 죽은 인간(영혼)을 저승의 시왕앞까지 데려가는 임무를 맡고 있는 존재이므로, 이 본

풀이는 인간의 죽음 및 저승에 있다는 시왕(尸王, 屍王)과 관련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7) 세경본풀이

집안이 부요하나 늙도록 자식이 없던 김진국대감이 절에다 원불수룩을 드리고, 딸을 얻은 후 이름을 자청비라 짓는다. 한편 이집의 여종은 정수남이라는 아들을 얻는다. 열다섯살이 되었을 때 자청비는 빨래하러 나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을 보고 반하여, 남장을 하고 그를 따라 함께 서당에서 3년간을 공부한다. 문도령이 결혼을 위하여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자청비는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함께 사랑을 맺은 후 헤어진다. 자청비네집 우마를 각각 아홉마리씩이나 잡아먹은 정수남은 혼이날까봐 산에서 문도령이 노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전인 자청비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그녀를 겁간하려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한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가서 도환생꽃을 가져다가 정수남을 살려내지만, 이일로 하여 부모로부터 내쫓김을 당한다. 이후 자청비는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하늘에서 물을 길러 내려온 선녀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따라 하늘에 올라 문도령의 부모로부터 며느리가 될 수 있는지의 시험을 받고 문도령과 결혼한다. 하늘에서 일어난 변란을 진압해 준 공으로 자청비는 오곡종자와 메밀씨 및 열두시만국을 받고 남편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세경신이 된다. 그리고 지상에서 굶어죽어가던 남종 정수남은 목축신으로 좌정시킨다.

세경본풀이는 큰굿내의 여러 신화 중 내용이 제일 길고 복잡하며 가장 재미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화는 곧 우리민족에게 열두시만국과 오곡의 종자 및 메밀씨를 갖다준 농경기원신과 목축신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8) 문전본풀이

아들 일곱을 둔 남선비가 가난을 면하기 위해 이웃나라로 무곡장사를 떠났다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속아 가져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놀러산다. 남선비의 부인은 3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남편을 찾으러 떠났다가 노일제대귀일에게 속아 죽임을 당하여 물속에

넣어진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남선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거짓으로 배가 아프다고 꾸미고, 아이들의 애 일곱개를 먹어야 낫는다고 거짓말을 한다. 막내아들 녹디생인이 산돼지의 간을 가져다 주며, 형님들의 애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계모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이것을 먹는척하다가 자리 밑에 놓아둔다. 이를 본 녹디생인은 계모를 죽이려 하는데, 계모는 달아나다가 측간에서 목매어 죽는다. 녹디생인은 물에 오래 있어 춥다하여 어머니를 불이 있는 부엌의 조왕신으로 들어서게 하고, 아버지는 올레정쌀지신으로, 계모는 측간신으로 그리고 형들은 각각 동서남북 중앙을 지키는 신으로 삼고, 여섯째형은 뒷문전으로, 그리고 자신은 일문전으로 들어선다.

9) 칠성본풀이

장나라 장설옹과 송나라 송씨부인이 나이먹어도 아기가 없어 걱정을 하다가 칠성단을 무어놓고 칠성제를 지낸후 딸아이를 낳는다. 아이가 일곱살이 되었을 때 부부는 서울로 벼슬살러 가게 되어 집을 비웠는데, 지나가던 중이 잉태를 시키고 간다. 돌아온 부부가 딸을 보니 일곱아기를 배고 있었으므로 차마 여덟생명을 죽일 수 없어서 무쇠석곽을 만들어 야광주를 물린후 바다속에 띄워 보낸다. 지나가던 남자가 무쇠석곽을 열고 보니 뱀 여덟마리가 들어 있으므로 "징그럽다하여 내던진다. 이후 이 뱀들을 모신집은 부자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 뱀들을 위하게 되었다. 뱀들은 안방, 욕, 창고, 과원, 집뒤, 후원 등에 각기 자리잡고 신으로 좌정한다.

10) 스만이본풀이(맹감본풀이)

어려서 고아가 된 스만이는 동냥하며 가난하게 살다가 이웃의 동냥거지를 만나 결혼한다. 부인은 가난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며, 팔아서 먹을 것이나 사오라 하는데, 스만이는 이돈을 가지고 남늘개구약총을 사온다. 사냥하러 나갔다가 백년해골을 만난 스만이는 그것을 가져와 잘 모신후 사냥이 잘되어 부자가 된다. 백년해골의 가르침으로 스만이는 정명이 다차 죽게된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차사를 후히 대접하고 수명을 연장한다. 그는 삼천년 혹은 사만년을 살았다 한다.

11) 지장본풀이

천하거부인 남산과 여산부인은 마흔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불당에 원불수룩을 드리고 딸을 낳아 지장이라 이름한다. 지장아가 네살되던 해 할망과 하르방이 죽고, 다섯살 때는 아버지가, 여섯살 때는 어머니가 갑자기 죽는다. 지장은 외삼촌집에 박대받으며 살다가 열다섯에 이웃으로 시집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은 후 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 그런데 다음해인 지장이 열여섯 되던 해에 시할망과 시하르방이 갑자기 죽고, 열일곱되던 해에는 시아버지가 죽고, 열여덟나는 해에는 시어머니가 죽고 열아홉에는 남궁과 아들도 죽는다. 시누이의 욕을 듣고 집을 나온 지장이 대사를 만나 자신의 사주팔자를 물으니, 대사는 초분은 좋고 중분은 나쁘며, 말분은 좋다고 하면서 서럽게 간 양가부모를 위해 전세남굿을 하라고 한다. 지장은 험난한 고초를 겪으며¹³⁾ 굿거리를 장만하여, 심방을 불러 억울하게 죽어간 양가부모님과 남편 및 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전세남굿을 벌이고 이후 죽어서는 새(鳥)몸으로 환생한다.

이상의 열한개의 신화가 각 자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외의 신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2) 본향본풀이

‘본향’이란 마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향본풀이란 곧 마을신의 근본내력담을 풀어주는 신화임을 알 수 있다. 서귀본향당본해나 토산당본풀이, 그리고 ‘신증도해’는 특정한 마을의 신에 대한 근본내력담이므로 이들은 모두 본향본풀이에 속하고 있다.

13) 험난한 고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굴미굴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상마루를 올리고 집을 짓는다.
- ② 서천서역국에 가서 뽕나무씨를 타다가 심고, 나무를 키운다.
- ③ 서천서역국에 가서 누에씨를 타다가 누에를 깨워 뽕잎을 먹이고 누에잠을 재운다.
- ④ 누에고치의 실을 풀어 전세남굿에 쓸 비단을 짜서, 실탓이다리용 비단과 두기구에 매달 끈 등을 짠다.
- ⑤ 이어서 호름준치와 아강배포와 극보(급부)야 자루 등을 짠다.
- ⑥ 머리를 깎고, 송낙을 쓴 후 장삼을 입고, 목탁을 들고 ⑤에서 만든 것을 두르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齋를 올릴 곡물을 모은다.
- ⑦ 동네의 친척과 함께 얻어온 곡물로 굿에 쓸 도래떡과 송편을 만든다. 이후 전세남굿을 벌인다.

13) 군웅본판 · 군웅본해 · 군웅본풀이

「사전」에는 군웅본판, 「조선」에는 군농본푸리, 「민간」에는 군웅본풀이가 있다. 이들은 내용이 각각 다르고, 다만 ‘군웅’이라는 점만이 공통인데, 「조선」에 나타난 이 신화의 내용은 고려시조 왕건의 世系를 설명하는 신화와 그 내용이 비슷하다.¹⁴⁾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군웅’이란 국가의 건국시조를 의미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4) 선양참봉본풀이

「사전」의 선양참봉본풀이와 「민간」의 영감본풀이는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것이므로, 이 둘은 같은 신의 본풀이라고 볼 수 있다. 영감은 일명 참봉 또는 야채라고도 하는데, 모두 도깨비를 일컫는 말이라 한다.¹⁵⁾ 선양참봉본풀이는 본풀이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전제조건이라고 생각되는 서사적 구성이 없고, 다만 어떤 상황, 즉 선양참봉이란 존재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가계내력담과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등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정상적인 제대로된 신화와 잠재신화의 중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앞서의 열한편의 제대로된 신화와는 구별된다.

15) 조상본풀이

조상본풀이는 일가 및 일집단(일족)의 수호신에 대한 본풀이이므로, 곳을 행하는 집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16) 원텨강본풀이

이 신화는 오직 「조선」자료에만 나타나 있다. ‘오늘’이란 여신이 가진 바

14) 서대석(1968), “서사무가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p. 124.

15) 다음의 글을 참조하면 선양 및 선양본풀이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장주근(1986), “제주도 무속의 도깨비 신앙—달해·처용파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논고」, (서울, 제동사) p. 333.

문무병(1982), “제주도 도깨비 당신화에 관한 일고—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연구논총」 2집,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원우회, pp. 30-61.

현용준(1986), 「제주도 무속연구」(서울, 집문당) pp. 187-197.

현용준(1988),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백록어문」 5,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의 기능은 사람들의 팔자를 물어다 그것을 알려 주거나, 또는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이다. 이 신화의 내용은 우리나라에 광포하는 ‘구복여행제’ 민담과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선」자료만을 보면 어떤 제차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신화가 구송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이 신화에 대한 고찰은 논의로 하겠다.

17) 세민황제본해

이것은 당태종입명기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연구된 바 있다.¹⁶⁾ 큰굿에서 구송되었다고는 하나 역시 앞서의 원천강본풀이와 같이 제의적 성격이나 기능을 알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고찰을 생략한다.

18) 황정승본풀이

「민간신앙」에 실려 있는 이 본풀이는 병이 들은 황정승이 아홉달에 걸쳐 소 아홉마리를 잡아먹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제의적 기능이나 성격을 잘 알 수가 없다. 아마도 개별집단에서 불렀던 본풀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이 네자료에 나타나는 바 큰굿속에서 구송되었던 본풀이의 종류인데, 여기서는 다만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큰굿 개별의례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다는 중요성이 있다.

2. 신들의 종류와 위계질서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큰굿을 원래 형성했거나 또는 현재 거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향하는 신들을 모두 같은 차원의 신들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큰굿의 맨처음에 행해지고 있는 의식인 초감제 중에 있는 <젓드러얹혀살려움>에는 이러한 생각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젓드러얹혀살려움이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의 수많은 신들을 제의가 행해지고 있는 제청에 순서대로 얹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무속집단은 ‘남정중여중넛법’에 따

16) 서대석(1968), 앞의 글. pp.108-123 참조.

라 '나이에 관계없이, 벼슬 직함에 따라 차례로 앉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사전」 p.73).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도 신들도 벼슬과 직함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그들은 젓두리앉혀살려움의 내용을 구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앞의 신은 상위신이고 뒤로 갈수록 이 신들은 하위신이라고 상정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굿집단의 계급의식이 이처럼 철저했다면, 그들은 큰 굿의 개별의례 역시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행했을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큰굿집단은 신에 대한 예우를 아주 철저히 했으므로, 각기 다른 직능과 직함을 가진 신에게 제의를 행할 때도 우선은 직급이 높은 신부터 행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굿 개별의례의 순서는 이들의 순서에 따라 행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입장을 중시하면, <젓두리앉혀살려움>에 나타난 바

[도표 1] 젓두리앉혀살려움에 나타난 신의 위계질서

분 절 단 위		「사 전」	「조 선」
[1]	(1)	천지천왕~절차지신	하늘차지~절차지신
	(2)	인간차지·얼굴차지신	인간생물차지·얼굴차지신
[2]	(3)	초공(신뿌리)	左同
	(4)	이공(꽃뿌리)	〃
	(5)	삼공(전상두리)	〃
[3]	(6)	시왕·시왕의 권속으로 저승	〃
		차사가 나옴	〃
	(7)	맹감	〃
[4]	(8)	세경	〃
	(9)	<u>일월신</u>	<u>칠 성</u>
[5]	(10)	문전신	左同
	(11)	본향신	〃
	(12)	<u>칠성신</u>	<u>일월신</u>

신의 위계질서에 맞추어 보면 큰굿의 개별의례가 도출될 수 있다는 도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 「조선」을 중심으로 하고 「남국」을 보조자료로 하면서, 갯다리얹혀살려움에 나타나는 신의 종류와 위계질서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논의되는 과정은 생략하고¹⁷⁾ 결과만을 [도표 1]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1]~[5] 또는 (1)~(12) 등으로 신의 종류 및 위계를 분절한 것은 갯다리얹혀살려움에 나타나는 바의 어떤말에 따라 이것을 나눈 것이다. 이러한 분절은, 이들 신들을 각기 다른 차원으로 생각했던 큰굿집단의 인식체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3. 재 조정해 본 큰굿의 구조

큰굿의 각 개별제차의 존재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풀이의 유무에 있다. 그리고 큰굿 개별의례의 순서는 신들의 위계에 따른 순서와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큰굿의 개별제차를 재구성해보고자 할 때, 우선은 신의 위계질서를 증시하고 여기에 본풀이의 유무 및 대상신의 직능을 살펴 그것을 대입하면, 개별제차가 추출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살펴 본 바의 본풀이들을 갯다리얹혀살려움에 나타난 신의 위계순서에 대입시켜, 큰굿 개별의례의 순서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것도 역시 간단히 [도표 2]로 요약해 보겠다.

[도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큰굿개별제차는 (1)부터 (12)까지의 순서로 정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9)와 (12)의 순서는 자료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풀이의 성격과 상관하고 전후의 맥락과 연결지어 그 순서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

칠성본풀이만을 증시하면, 칠성신은 富신으로만 나타난다. 그러나 「사전」의 갯다리얹혀살려움 및 비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신은 오곡의 풍년을 가늠하는 풍농신으로 되어 있다. 세경본풀이를 보면, 세경신은 우리민족에

17) 논의되는 과정을 생략하는 까닭은, 이것을 다쓰면 지면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拙稿(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pp. 61-75에 자세히 나와 있다.

[도표 2] 위계에 따른 신의 종류와 해당되는 본풀이들

분절단위	갯드리않혀살려움에 나타난 신의 위계		큰곳에서 불러지는 본풀이의 종류
	「사전」	「조선」	
[1]	(1) 천지천왕~절차지신	하늘차지~절차지신	←천지왕 본풀이
	(2) 인간차지·얼굴차지신	인간생불차지·얼굴차지신	←생불할당 본풀이
[2]	(3) 초공(신뿌리)	左同	←초공 본풀이
	(4) 이공(꽃뿌리)	〃	←이공 본풀이
	(5) 삼공(전상드리)	〃	←삼공 본풀이
[3]	(6) 시왕·시왕의 권속으로 저승차사가 나옴	〃	←저승차사 본풀이 즉 강님차사 본풀이
	(7) 멍감	〃	←멍감본풀이, 즉 스 만이 본풀이
[4]	(8) 세경	〃	←세경 본풀이
	(9) <u>일월신</u>	<u>칠성</u>	←칠성 본풀이 혹은 일 월조상 본풀이들
[5]	(10) 문전신	左同	←문전 본풀이
	(11) 본향신	〃	←본향 본풀이
	(12) <u>칠성신</u>	<u>일월신</u>	←칠성 본풀이 혹은 일 월조상 본풀이

게 오곡종자를 가져다준 농경기원신이다. 풍농신은 농경신과 짝해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칠성신에 대한 개별제차는 세경신에 대한 제차 다음에 와야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신의 위계에 대한 언급순서는 「조선」의 자료가 비교적 정확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번째 행해진 개별의례는 칠성신에 대한 제의였다고 보고, 일월조상신에 대한 의례는 본향신에 이어 열두번째로 행해졌었다고 보기로 한다.

큰곳이 형성될 당시 원래 행해졌었을 것으로 보는 큰곳 개별의례의 순서는 앞서 추론한 바와 같다. 다음에는 논지의 편의를 위해서, 현행하는 큰곳의 내용과를 비교하면서 새로 추정된 큰곳 개별의례의 명칭을 정해 보기로 하겠다.

(1) 천지왕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초감제 : 현행하는 큰굿을 보면 천지왕본풀이는 초감제의 배포도업침에서 불리우고 있다. 초감제는 큰굿의 맨앞에서 행해지는 의례이다.

(2) 생불할망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불도제 : 아이를 점지·임태시키며,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신인 생불할망신에 대한 본풀이 및 구삼승할망·마누라본풀이 등은 현존하는 큰굿에서는 불도맞이라는 제차에서 구송되고 있다. ‘불도’란 생명신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제차를 불도제라 하기로 한다.

(3), (4), (5) 초공·이공·삼공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초공제·이공제·삼공제 : 초공본풀이는 현재 초공본풀이라는 제의에서 불리우고, 이공본풀이는 불도맞이 및 이공본풀이라는 제차에서 불리운다. 이공본풀이가 불도맞이 제차 속에서 불리우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부터 변모된 것이다. 삼공본풀이는 현재 삼공본풀이제차에서 불리우고 있다.

(6) 강님차사본풀이가 구연되는 제의→시왕제 : 강님차사는 죽은 사람을 저승까지 데려가는 저승차사이다. 이 본풀이는 현재 시왕맞이라는 제의에서 불리우고 있는데, 시왕이란 저승에 있는 왕들을 의미하므로 제의의 명칭과 본풀이의 성격이 일치한다.

(7) 멩감본풀이가 구연되는 제의→멩감제 : 이 본풀이는 현재 시왕맞이제차에서 강님차사본풀이 및 지장본풀이와 함께 구송되고 있다. 저승에 있는 시왕을 모시고 행하는 제의속에서 이처럼 성격이 다른 세본풀이가 함께 불리우는 것은 변모로 볼 수 있다. 즉 이 세본풀이의 내용에는 전부 ‘죽음’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이들은 죽음과 관련된 시왕맞이제차에서 함께 불리우게 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젓드리앉혀살려움에는 멩감신에 대한 내용이 따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신에 대한 개별제의가 따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8) 세경본풀이가 구연되는 제의→세경제 : 현행의 큰굿에서는 세경본풀이라는 제차속에서 이 신화가 구송되고 있다.

(9) 칠성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칠성제 : 이 본풀이는 현재 각도비념이라는 제차에서 구송되고 있다. 이 본풀이를 구송하면서 칠성신에 대해 제의

를 베풀었던 제의를 편의상 칠성제라 부르기로 한다.

(10) 문전본풀이가 구연되는 제의→성주제 : 문전본풀이는 현재 문전본풀이라는 제차에서 불리우고 있다. 「사전」의 젓드리얏혀살려움에는 문전신을 성주신이라고도 하고 있으므로, 이 제의를 ‘성주제’라 하기로 한다.

(11) 본향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본향제 : 본향본풀이는 마을신에 대한 본풀이다. 마을에 따라 모시는 신도 다를 것이므로, 본향본풀이의 내용은 마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이 있다.

(12) 일월조상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일월조상제 : 일월조상신은 한 집안의 조상신 또는 수호신을 일컫는 말이므로, 이 제의는 어떤 한 집단의 조상수호신을 제의했던 것이다. 이것 역시 어느 집단에 의해 큰굿이 행해지는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이 있다. 큰굿내의 자료에 앞서와 같이 군웅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선암참봉본풀이, 황정승본풀이, 그리고 일월조상본풀이 등이 남아 있게 된 것은 큰굿제의속에 이처럼 한 집단의 조상신 또는 수호신을 제의했던 제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은 언제, 어디서, 어느 집단에 의해 창조되고 형성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제주도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무속제의인 큰굿이 형성되었을 당시 행해졌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큰굿 개별의례의 순서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특별한 대상신을 모시고 행하는 개별의례의 숫자는 전부 12개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앞서 살핀바 여러 자료에 나타나는 11개의 신화 중 지장본풀이라는 신화는 빠져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신화는 여러 자료에 공통해서 남아 있고, 또 그 서사적 근간도 여타의 다른 10개의 중요한 신화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서 큰굿내에서 반드시 불리웠던 신화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큰굿 열두개의 개별의례속에는 이것이 불리우는 곳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신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자 한다.

신화내용을 중시하면, 지장본풀이에 나오는 여주인공 지장아기의 신적 기능은 다른 어떤 친밀한 존재를 죽게 하거나, 혹은 죽도록 유도하는 것이었

다(殺, 必死).¹⁸⁾ 그리고는 이들을 저승에서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이 신화의 대상신은 인간이 현실적 삶의 평안을 기구하기 위해 마련한 신들의 기능과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다. 제의에 있어, 대상물을 죽일 필요가 있는 것은 신들에게 바칠 희생제물의식의 경우이다. 제물이 되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 따위가 될 것이므로, 이 신화는 이때 이들을 죽이기 위하여, 또는 이들을 죽이면서 불리워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장본풀이신화는 현재 백정집단의 생업의 변창을 비는 ‘거무영청대전상’이라는 굿에서도 불리우고 있다 하는데¹⁹⁾, 이점 역시 이 신화와 제의와의 상관성을 앞서와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볼 때, 큰굿내에는 열두개의 개별의례 및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제물의식에서 불려졌던 신화는 이와 같은 의식이 없어지면서 자리를 잃고, 죽음과 관련된 신화내용 때문에 오늘날은 시왕맞이속에 남아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큰굿의 각각의 개별의례는, 각 신들의 본풀이인 신화만을 구송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먼저 [신내림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말을 읊고, 이어서는 [언제 어디서] 굿을 한다는 것을 신에게 알린 후, [굿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본풀이]를 읊어 신의 현현을 기도하고, 이어 이들 신들을 맞기 위한 길닦음이나 다리놓기 등의 [맞이 의식]을 행하고, 맞이한 신을 자리에 앉히고, 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동시에 인간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한 [놀이]를 행하며 이어서는 인간사원하는 일을 신에게 [기원]한 후, 신이 이 소원을 들어줄 것인지를 점치고 [산받아분부사됨], 이어서 간단히 신들을 대접한 후 제차가 끝났음과 동시

18) 지장본풀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拙稿(1988), “무속신화 「지장본풀이」의 제의적 기능과 의의”, 강운호 교수 화갑기념논문집(이때, 강운호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刊).

19) 현용준(1980), 「사건」 p. 467 주 1) 참조.

지장본은 ‘도살아지장본’으로도 말하는데, 이때의 도살은 屠殺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지장은 도살의 기능과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 다음제차로 넘어감을 언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공통이다. 여기에서 이들 각각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일은 생략하도록 한다. 이어서 다음에는 앞서 추론된 순서에 의거하여 큰굿 개별의례의 제의적 성격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Ⅲ. 큰굿의 제의적 성격

1. 초감제(종합영신의례 : 창세신에 대한 의례)

A. 초감제의 성격

「사전」에 따르면, 초감제는 ① 베포도업침 ② 날과국섬김[祭廳도업] ③ 집안연유담음 ④ 군문열림 ⑤ 새드림 ⑥ 오리정 ⑦ 젓드리얏혀살려움 ⑧ 정데우 ⑨ 산받아분부사됨의 순으로 진행된다.²⁰⁾

베포도업침에서는 제의가 진행되고 있는 날(시간)과 국(공간)이 생기는 과정이 설명되고, ②는 제의가 행해지고 있는 시공간을 신들에게 알리는 것이며 ③은 제의를 행하는 사유를 노래하면서 강신을 청하고 있다. ④는 신들이 살고 있는 궁의 많은 문들을 열어주는 것인데, 신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올 준비를 한다. 새드림은 신들이 하강할 장소인 지상의 오리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신들이 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내재해 있다. 신들은 오리정이라는 지상의 정자에 내려 여기서부터 제청까지의 5리는 말이나 가마 또는 흑낙을 타고 간다. ⑦ 젓드리얏혀살려움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청까지 도착한 신들을 차례로 자리에 앉히는 것이고, 정데우란 오리정에 남아 있는 신들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다시 한번 앞서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받아분부사됨을 통해서 신들이 모두 제의되는 곳으로 왔음을 점치고 있다.

이상의 초감제는 종합적인 신맞이의식이며 그러기에 이것은 종합영신의례라 할 수 있다. 이어서는 초감제에서 빠진신이 있을까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초신맞이와 초상제를 다시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큰굿집단은 어떤

20) 이하 이들 각 사항에 대한 해설은 「사전」의 설명을 따른 것이다.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세번 반복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하여 종합영신의례가 끝나면 다음에는 인간살과 밀접한 기능을 가진 특정한 신들을 모시고 행하는 개별의례가 행해진다.

B. 배포도업침의 내용 및 제의적 기능

초감제는 많은 신들을 함께 신청에 맞이하고 대접하는 의례이므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신들이 하강할 [시간과 공간]을 신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 큰굿집단은 제의를 행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마련된 기원적 사실부터 설명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배포도업침의 내용인데, 이것은 그 성격 및 제의적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건」에 나타난 배포도업침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천지혼합 : 하늘과 땅이 붙어 있음.
- ② 천지개벽 : ㉔ 하늘과 땅사이에 금이 생겨 벌어짐.
 - ㉕ 하늘로부터 청이슬 · 땅으로부터 흑이슬 중앙에는 황이슬이 내려
合水
〔天開, 地開, 人開(生)〕
- ③ 天地人皇도업
- ④ 하늘에 청 · 백 · 적 · 흑 · 황구름 생김
- ⑤ 천황담 · 지황담 · 인황담이 나타남(동성개문)
- ⑥ 하늘에 별이 생김(동서남북 사방의 별)
- ⑦ 하늘에 희와 달이 두개씩 떠서 인간세상에서는 낮에는 타서 죽고 밤에는 얼어 죽음.
- ⑧ 천지왕본풀이 등장 : 대별왕과 소별왕이 해와 달의 수를 각각 하나씩으로 조정하고, 이승과 저승차지 시합을 벌임. 소별왕이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괴와 악으로 가득차게 됨.
- ⑨ 열다섯 十五聖人道업 : 천황씨 열두 양반, 지황씨 열한 양반, 인황씨 아홉양반만 나타나고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는, 배포도업침은 곧 우리 인간이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질서잡히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주만물의 창생원리, 또는 창조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꺇을 형성한 집단이 창조해낸 천지창조신화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무속집단이 가졌었던 바 우주적 차원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과 해답이 있었을 듯하나, 앞의 내용만으로는 궁극적인 것을 알아낼 수 없다.²¹⁾ 다만 이것을 통해서 큰꺇집단은 자신이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시원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었고, 이 내용은 여기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용이 비교적 완전하게 전해지는 천지왕본풀이는 무슨 의미를 가지면서 배포도업침속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배포도업침 중에 있는 천지왕본풀이는 하늘에 있던 두개씩의 해와 달을 각각 하나씩 되도록 한 신들에 대한 본풀이이다. 이들 신은 이 세계의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과업을 행함으로서, 더워서 타서 죽고 추워서 얼어죽게 되었던 인간세상을 구제해 준 신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 삶의 조건을 지배하거나 좌우하는 기능을 가진 신들과는 성격이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이루어진 공업으로서 찬양되고 칭송받고 있는 것이다. 해와 달이 애초에는 두개씩 있었다고 설정하고, 이것을 화살로 쏘아 하나씩 마련하도록 한 것은 한발과 더위, 그리고 홍수와 추위를 미리 예방하고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곡물재배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는 연구가 있다.²²⁾ 해와 달의 수조정이 천후의 조절과 관계있다고 본다면,

21) 따라서 <배포도업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전」에 나타난 <배포도업침>의 내용만을 고찰한 것은 본고가 계속 「사전」에 힘입어 본 논지를 전개하기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다. <배포도업침>의 내용은 제주도 큰꺇을 형성한 집단, 곧 우리민족이 창조해낸 천지창조신화, 또는 인간기원신화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연구는 다음에 별고를 통해 다시 발표하기로 하겠다.

22) 현용준(1973), “월명사 도술가 배정설화고”, 한국언어문학 10집. pp. 87-106. 서대석(1980),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p. 17. 여기에서는 천지왕본풀이에 나오는 바 日·月の조정이 의미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두개의 태양의 의미하는 것은 한발을 뜻하고, 태양을 쏘아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농작물에 타격을 주는 가뭄을 방지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다. 태양의 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더위와 한발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달은 물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신화형성집단은 천후가 고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신화내적 질서에 그들의 신으로 하여금 미리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내용을 이렇게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쌍둥이가 천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고도 여기에 나타나 있다.

해와 달의 조정에 이어 나타나는 이승과 저승차지시합의 신화적 의미는 이제 인간세상에 삶과 죽음의 세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승법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죽음이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것이기에 이렇게 생각되어졌다고 본다. 이승은 거짓과 속임수로 이 세상을 차지한 신 때문에 不淨한 세상이 되었다. 이 세상이 살인, 간음, 역적, 도둑……등이 만연하게 된 것이, 신이 저지른 원죄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곳으로 보는 사고와 현실적 인간을 부정적인 존재, 부도덕한 존재로 보는 사고가 동시에 표명되어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앞서의 의미를 가지면서, 이 세상에 있는 해와 달이 오늘날과 같이 마련될 수 있었던 유래와 아울러 인간세상에 삶과 죽음의 세계가 설정된 과정을 함께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베포도엮침속에 살아 있다.

베포도엮침은 앞서와 같이 우리 인간이 몸담아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큰굿이라는 제의가 시작되는 맨 앞부분이 이와 같이 우주천지의 창생, 즉 천지의 혼합과 그것이 개벽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결국 제의의 시간을 우주가 창조된 아득한 <그 태초의 때>(in illo tempore)로 되돌림으로써, 제의되는 시간을 俗으로부터 분리시켜 聖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주는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²³⁾ 제의의 시공간은 이렇게 하여 우주창조의 그 순간과 접맥되고, 현실로부터 분

홍수와 관련시켜 앞서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신화내에 나오는 이러한 사실은 우주의 질서를 반복 갱신하고, 하계의 천후조절을 꾀하여 작물의 풍작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고 했다.

23) M. Eliade, 「신화와 현실」, 이은봉(역), (1985) (서울, 성대출판부) pp. 20-62. 천지창조신화가 가지는 제의적 기능은, 제의의 시공간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속적인 시간을 성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는데 있다고 하였다.

리되면서 성스러운 시공간이 되기 시작한다. 베포도업침의 제의속에서의 기능은 이처럼 제의되는 시공간을 정화시킴으로서, 제의를 보다 신성하게 만들어 주는데 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초감제는 종합적인 신 맞이이면서 동시에 우주자연의 질서를 재정비한 신들의 공업을 칭송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2. 불도제(아이 產育神에 대한 의례 : 탄생의 원리)

초감제에 이어 두번째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특정한 신적 기능을 가진 대상신에 대한 제의로서는 제일 처음 행해지는 것이 바로 불도제이다. 개별제 의의 앞에서는 수목침이 행해지고 본풀이들이 구송되며, 이어서 꽃타려듬과 꽃풀이라는 놀이가 진행된다. 구삼신뉘와 마누라배송도 이 제의와 상관된 놀이일 수 있다.

생불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는, 아이의 死産이나 질병을 초래하는 구삼송할망(저송할망)과 마마를 앓게 하는 혼합천자뱀금상마누라신, 그리고 서천꽃밭에 있는 아이잉태꽃인 [생불꽃]을 갖고 다니며 아이의 잉태를 점지하고, 출산과 열다섯까지의 성장을 돕는 생불할망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불도제는 이 세신에 관한 제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풀이 전체의 내용이 생불할망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중심되는 신은 생불신이다. 신화내용이 생불신으로 하여금 아이성장의 저해요인인 질병신과 마다신을 제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이 신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도록 만듦으로서, 그녀로 하여금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다함께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서는 현실삶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잉태를 점지하는 생불꽃을 피우는 꽃씨를 하늘로부터 가져온다고 하는 것에는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다는 사고가 내재해 있고, 생불할망이 점지하는 생불꽃의 종류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데에는²⁴⁾ 다분히 인간의 운명이 예

24) 생불할망이 서천꽃밭에 있는 [생불꽃]을 가지고 잉태를 점지할 때, 동쪽의 푸른꽃으로 하면 남자가 되고, 서쪽의 흰꽃은 여자가 되며, 남쪽의 붉은 꽃

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불도제는 현실적으로 아이의 잉태와 안전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질병없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마마도 앓지 앓도록, 혹은 앓는다 해도 약하게 앓고 나을 수 있도록 회귀하면서 제의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이 당시 이런 문제들이 잘 지켜지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마마는 살아남기도 어려웠지만, 혹시 살아남는다 해도 얼굴을 얻게 하여 제모습을 일그러뜨리는 것이었으므로, 이들은 특히 이 병을 무서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이의 잉태와 多産, 그리고 안전성장은 자손의 번성 및 집안의 혈통을 강화시키는 것과도 상관있다. 때문에 불도제는 곧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행해졌었다고 볼 수 있다.

생불신의 기능은 최초의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태어나는 인간의 아기들을 점지하여 잉태・출산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제의 및 신화는 인간의 탄생원리, 곧 출생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다.

3. 초공제(巫祖神)에 대한 의례 : 巫의식 창조의 원리)

큰굿이라는 의식은 巫 혹은 覡이라고 하는 무당 또는 심방 등에 의해 진행된다. 그런데 초공본풀이 신화를 중시하면 초공제는 이와 같은 의식을 담당하는 巫 또는 巫法의 시원적 창시자들을 대상신으로 삼고 행해지는 제의이다. 따라서 이 제차가 가진 큰굿내에서의 기능은, 큰굿집행 사제자들이 자기들의 수호조상신, 즉 최초로 巫의식을 창조하고 집행했던 제신들의 공업을 기리면서 동시에 큰굿의식이 잘 거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는 巫 또는 巫儀의 기원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다. 따라서 이 신화를 잘 검토하면 巫法의 본질이나 巫儀의 시원, 또는 무조신들의

으로 점지하면 장명・장수할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복쪽의 검은 꽃은 단명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의 누런꽃으로 하면, 만파출신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출세를 의미한다. 동서는 남녀의 분할적 의미를 가지고, 남북은 수명과 상관되어 있으며, 중앙은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중앙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성격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중 중요한 몇가지 사실만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최초의 췌사제자는 황금산 도단땅에 살고 있던 주자선생의 쌍둥이 세 아들이며, 이들이 행한 최초의 무의식은 초감제, 초신맛이, 시왕맛이라는 의식이었다.

② 무악기 및 무기구는 최초의 무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졌는데, 무악기로는 북과 징이 있고, 이것은 쌍둥이 세아들이 녀사 매 아들 너도령과 함께 만든 것이다. 그리고 상잔, 천문, 요령 등의 무기구는 동해바다 대장장이 아들과 함께 만든 것이며, 시왕대반지인 神刀를 만든 것은 인간사회의 악한 존재를 정치하기 위함이었다.

③ 신화내용을 분석하여 얻어낸 巫의 기능이나 직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 하늘~땅.....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우주 및 자연을 주관
- ㉡ 초감제~시왕맛이.....우주적 차원의 신과 生 및 죽음에 관계된 신을 주관
- ㉢ 死→生.....인간의 生・死를 주관
- ㉣ 시왕대반지를 선언하여 ...인간사회의 질서를 주관
악한 존재를 정치

④ 최초의 강신무는 유정승딸인데, 그는 평생에 걸쳐 안맹이라는 身病(神病)을 앓고, 77살 되었을 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최초의 전세남굿을 했다. 이 굿을 할 때는 쌍둥이 세아들의 어머니가 지키고 있는 신당(뽕당)에 가서 그녀와 함께 어멍딸(어머니와 딸)을 맺고 무기구 및 제기를 빌어서 행했다.²⁵⁾

초공본풀이신화에서 최초의 췌사제자가 쌍둥이 세아들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민족도 고대에는 쌍둥이에 대한 신성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해와 달의 수를 조정한 대별왕, 소별왕이

25) 이 부분은 오늘날의 무속사회 중, 특히 강신무들의 사회적 제반 관계양상과 비슷한 점이 있어 눈길을 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강신무의 기원적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아닌가 생각된다.

두 쌍둥이로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고대에는 쌍둥이에 대한 기묘한 신앙이 있어서, 이들은 자연에 대해서 특히 天候에 대해서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다 한다.²⁶⁾ 이렇게 보면, 천지왕본풀이는 우주적 차원에서 [해/달] [이승/저승]이 대별되는 쌍본법에 따라 두쌍둥이로, 그리고 초공본풀이는 인간사회를 중심으로, 그들을 감싸고 있는 天地人의 三分체계에 따라 세쌍둥이로 나타났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4. 이공제(呪花관장신에 대한 의례 : 죽음기원의 원리)

젯더리얏혀살려움에 보면, 초공신의 직능은 신뿌리로, 이공신은 꽃뿌리로 나타난다. 초공본풀이에 의거하면 신뿌리란 도들 제신들의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같은 원리로 보면, 꽃뿌리란 어떤 꽃들을 맡아 주관하고 있는 직능을 가진 신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의 및 신화에서는 ‘꽃’ 및 이것을 관장하는 신들의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되므로, 본풀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여기에 나타난 꽃

26) J.G. Frazer, 「황금의 가지」, 김상일(역), (1975), (서울, 을유문화사) p. 107.

쌍둥이가 자연에 대해서, 특히 天候에 대해서 呪術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신앙은 널리 분포되어 있던 신앙이다. 북미 인디언의 많은 부족 및 동남아프리카의 델라고만 근처에 살고 있는 바툼가족도 쌍둥이가 특별히 천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이들을 신성시했다고 하는데,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마도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늘의 질서를 잡은 최초의 신이 두 쌍둥이였고, 최초의 巫사제였던 초공의 삼형제도 세 쌍둥이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도 옛날에는 쌍둥이에 대한 기묘한 신앙을 갖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쌍둥이는 보통의 인간과는 출생시부터 다르다. 일시에 둘, 또는 셋이 동시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숫자 면에서도 중시될 수 있으나, 아마도 그들이 가진 비슷한 외양 때문에 더욱 신성시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배에서 동시에 둘 또는 세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도 보통인간과 다른 특이한 사실일 수 있는데, 또 한편 이들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신기한 일일 수 있다. 이들이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古代사회에 있어서, 이들은 아마도 어떤 신적 배려나 주술적인 힘에 의해 태어났다고 생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에 이들이 신성한 어떤 주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천지왕본풀이 및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쌍둥이에 대한 신성관념은, 본 신화를 형성한 집단도 쌍둥이에 대한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본 신화들이 세계 보편적인 신앙체계 위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으로서, 이들 신화 내용이 상당히 고형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의 종류 및 기능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공본풀이신화는 서천꽃밭을 중심으로, 이 꽃밭과 장자집과의 관계, 곧 꽃밭을 지키는 呪花관장신과 장자네 식구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신화이다. 여기에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꽃이 세가지가 있다. 장자의 일족을 죽였던 수레멜망악심꽃, 장자네집 일족을 웃게 만들었다가 싸우게 만들었던 웃음웃을꽃과 싸움싸울꽃, 그리고 죽은 어머니인 원강아미를 다시 살려내는 도환생꽃의 세 종류가 바로 그것이다. 이공신의 직능이 꽃뿌리라는 점을 중시하면, 여기에서는 서천꽃밭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여기에 앞서와 같은 세가지 기능의 꽃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제의 및 신화에서는 세가지 꽃 및 이들의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레멜망악심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신화를 읊기 바로 전에 말해지는 들어가는 말미에는 다음에 ‘악심꽃의 본산국을 읊겠다’고 한다. 이것은 곧 이공본풀이신화란 이 꽃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 이공제의 놀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악심꽃을 꺾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악심꽃꺾음]도 이 신화 및 제의에서는 악심꽃이 중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악심꽃꺾음’이라는 놀이를 보면, 여기에는 악심꽃이 있어 우리 인간도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꽃을 오독독이 꺾어버리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속에서 악심꽃(수레멜망악심꽃)은 장자를 죽였던 꽃이다. 원강아미의 아들인 신산만산할락궁이는 서천꽃밭으로부터 이꽃을 가져와 자기 어머니를 죽인 장자를 징치했던 것이다. 이것은 장자가 탐욕하여 자기 어머니를 죽인 죄를 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화란 인간사회의 제법례를 정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장자를 죽였던 꽃이 다시 인간을 죽이는 꽃으로 변해있는 사실을 중시하면, 이상의 현상은 곧 장자의 일로부터 우리 인간의 일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동시에 이공본풀이라는 신화는 장자를 죽였던 신화내의 일로부터 우리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고자 형성된 것임도 알 수 있게 된다.

인간이 죽게 된 것은 原古의 시대에 있어 장자라는 신이 악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그는 다른 남자의 부인을 탐내고 겁간하려 했으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죽이기까지 했다. 장자의 죽음을 비롯하여 인간이 죽게 된 기원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것에는 인간 역시 惡心을 가진 존재로 보았다는 논리가 내재해 있는데, 이것은 천지왕본풀이에서 인간사회를 부정한 곳으로 본 것과 맥이 통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을 죽게 만들기 시작한 死의 꽃이 〈악심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간을 잉태시키는 生의 꽃이 〈생불꽃〉인 것과 기능상 대비되고 짝이 되는 것이다.

이공제는 서천꽃밭의 주화관장신을 위해 베풀었던 제의이다. 앞서의 생불할망본풀이를 중시하면, 서천꽃밭은 생불신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공본풀이 및 이공제는 이곳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불꽃, 악심꽃, 도환생꽃과 같이 인간생명을 생겨나게도 하고 죽게도 하며, 또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는 꽃들이 피어 있다. 생명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생명꽃’이라 부르기로 한다면, 이 꽃들은 바로 呪花가 되는 셈이다. 서천꽃밭은 큰굿형성집단이 인간생명에 대한 의경심을 갖고, 이것을 해명해 보고자 마련한 신화적 생명공간이라 할 수 있다.²⁷⁾ 그런데 이공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제신들을 위해 제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이공제는 서천꽃밭의 주화관장신에 대한 제의이지만, 악심꽃꺾음이라는 놀이에 나오는 바 ‘악심꽃을 잡아 버린다’든가 ‘꺾어버리자’는 내용을 상기하면, 이것은 인간의 죽음을 방지하고 삶을 긍정·소망하면서 행했던 제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화와 의례내용을 중시하면 이것은 인간 죽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불도제가 생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과 기능상 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 삼공제(전상차지신에 대한 의례 : 운명의 원리)

젓다리얹혀살려움에는 삼공신의 직능이 전상되리로 나타나 있다.²⁸⁾ 이것

27) 여기에 대해서는 拙稿(1989), 앞의 글, pp.186-204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8) 현용준(1980), 「사전」 p. 63 주를 참조하면 전상되리란 전상의 다리(橋)로서

은 전상을 주관하거나 전상을 차지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보면 결국 삼공제란 전상을 차지하는 신에 대한 의례였다 할 수 있다. 전상차지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삼공본풀이신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신화의 내용은 ① 세째딸 가든장아가 태어나면서 가난했던 부모는 부자가 될 수 있었고 ② 내쫓긴 동생과 부모 사이를 이간질시키려 했던 비뚤어진 마음을 가졌던 두 언니는 버섯이나 지네로 변하게 되며 ③ 딸을 내쫓은 부모는 안맹하고 절인이 되고 ④ 가난했지만 마음이 착한 세째 마통이는 가든장 아기와 결혼할 수 있고 부자가 되며 ⑤ 안맹하고 거지였던 부모가 내쫓은 딸을 만나, 보고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서는 눈을 뜰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는 전상드리를 하는 것이 a) 타인의 가난과 부를 마음대로 주관하고 b) 비정상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치하고, 착하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주며 c) 안맹과 같은 신체상의 질병을 불러 일으키게도 하고 없애주기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이것은 다른 존재들의 [가난/부], [질병/건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겠는데, 이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주는가는 상대방 마음의 [선/악] 또는 [정상적인 마음/비뚤어진 마음]에 따라 결정을 한다.

신화에서의 신적 기능은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삼공신의 능력은 곧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발휘된다. 전상드리신은 우리에게 좋은 전상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모진전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데, 좋은 전상이란 우리가 부자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고, 모진전상은 질병 및 가난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어떤 전상속에서 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선/악] 상태에 달려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상드리를 한다는 것은 곧 우리 한평생의 삶의 내용을 지배한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역으로 우리 한평생의 삶은 이 신에 의해 좌우되고 지배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이 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때,

전상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

전상이란 곧 인간 한평생에 있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되도록 운명지워진 어떤 상황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곧 오늘날의 개념으로서는 운명 또는 팔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상이란 바로 이런 상황 또는 개념을 나타내는 우리의 古語가 아니었던가 싶은 것이다.

삼공제는 전상드리신인 삼공신에게 제향을 베풀면서, 우리 인간이 모진 전상을 쫓고 좋은 전상을 맞이해 살고자 기원했던 제의이다.²⁹⁾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게 잘살고, 육체적으로는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그리고 특히 안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기를 소원했다. 그러면서 인간 한평생의 운명이 순탄하게 잘 풀려나가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의집단은 스스로 선택지도록 노력했으리라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도덕적 선에 대한 추구는 사회적인 공동체적 선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전상드리를 하는 신, 전상차지를 하는 신이 이처럼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은, 곧 큰굿형성집단이 인간 한평생의 삶의 내용은 어떤 신적 존재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었던 운명론적 사고를 지녔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인간의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신의 의지를 보다 강조하는 것이다.

6. 시왕제(저승신들에 대한 의례 : 死後 세계에 대한 원리)

젓드리았혀살려움에 나타난 시왕의 직능은 사람목숨차지 시왕, 죽어 목숨

29) 이 여신의 신직 및 신적 기능에 대해서는 그간 ‘前生의 因緣의 神’ 또는 前生神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것은 赤松智城 및 秋葉隆이 「朝鮮 巫俗의 研究」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장주근 교수는 「韓國의 民間信仰」 논고편, p. 311, 312, 315에서 삼공본풀이 내용에는 佛敎적인 경향이 보이지 않는데, <前生의 因緣을 司る 神>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불교적이라고 하고, 삼공본풀이와 같은 이야기가 백제의 미륵사 연기설화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전상신을 불교적인 의미의 ‘前生의 인연을 맡은신’이라고 보았다. 전상을 ‘사람이 일생 살아가면서 짓는 행위’와 같은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業’과 같은 의미로 보면, 이것은 불교적인 의미의 前生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본고는 신화내용 자체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전상의 의미를 일단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보았다. 내용 자체만을 중시하면, 여기에는 윤회적 개념인 前生의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을 윤회적 개념인 前生과 관련지어 해석하면 분석과정과 의미해석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차지 시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시왕이 인간의 죽은목숨을 담당하는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시왕제란 곧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하는 저승세계에 있는 신들을 모시고 행하는 제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큰굿집단이 인간이란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이며,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형성한 죽음의례(Thanatos rite)였다 할 수 있다.³⁰⁾

시왕제에서는 방광침이란 의식에 이어 해심곡 및 강님차사본풀이가 구송된다. 방광침은 死靈이 저승의 좋은 곳에 가서 다시 잘 살도록 빌어주는 의식으로, 시왕제의 앞부분에서 죽은 자를 위해 베풀어 주는 것이다. 해심곡에서는 죽은자가 가야할 저승세계의 여러 모습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인간은 저승사자가 옆에 당도하는 순간 죽게 되며, 그를 따라 멀고 먼 저승길을 걸어 마침내 저승문에 도착하여 자기가 태어난 생가에 해당되는 지옥부터 시작하여 열지옥을 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승에 있는 여러 좋은 마을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승으로 다시 환생할 것인지를 심판받는데, 최후의 심판자는 동자판관이다.

지옥에 있는 시왕은 열네명이고 마지막 열다섯번째가 동자판관인데, 이들의 이름과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제 1 진광대왕, 제 2 초강대왕, 제 3 송제대왕, 제 4 오관대왕, 제 5 염라대왕, 제 6 변성대왕, 제 7 태산대왕, 제 8 평등대왕, 제 9 도시대왕, 제 10 전륜대왕

〈2〉 제 11 지장대왕, 제 12 생불대왕

〈3〉 제 13 좌도대왕, 제 14 우도대왕

〈4〉 제 15 동자판관

이 중 〈1〉의 시왕들은 대체로 이승에서 지은 죄를 다스리고 형벌을 주는

30) 이하에서 설명되는 이 의례의 성격 및 저승지옥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拙稿(1990), “저승, 이승의 투사물로서의 공간”(무속에 나타난 죽음관)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국종교학회편 (서울, 도서출판 창) pp. 45-75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을 중점으로 한다. <2>중 지장대왕은 그 내용이 소멸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생불대왕은 이승에 살때, 열다섯 이전에 죽은 아기와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을 연결하여 업계청을 마련해 준다. 이 일은 서천꽃밭에 지를 붙여 행한다. 이것은 이승에서의 단명 및 불임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앞서의 일들을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일을 한다. <4>는 死者를 최후로 심판한다.

심판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열지옥을 거쳐도 이승에서 지은 죄를 다 갚지 못할 때는, 이승으로 우마나 구령이(청·혹색)·지네 등으로 환생시킨다. 이승에 살때 선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저승에 있는 좋은 마을인 상마을·중마을·하마을·줄럼당·말럼당·색효산·노상데·죽성도·상시당과 같은 여러 마을에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 그렇지만 死者가 원하면 새나 나비의 몸으로 이승으로 환생시켜 주기도 한다. 이들 내용을 중시하면 무속집단은 새나 나비를 가장 신성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벌과 고통의 장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승지옥은, 사자가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아니다. 이곳은 이승을 떠난 사령이 저승에서 다시 살 수 있기 위해 이승에서의 죄를 씻는다는, <죄씻음>의 의미를 가지는 공간일 뿐이다. 따라서 이곳은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initiation)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최후의 심판자가 동자판관인 것은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완전히 신화적 원리와 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를 심판하는 자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물들어 있지 않아야 한다. 어른은 경험된 지식을 통하여 이미 일상에 감염되어 있기에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때문에 올바른 심판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고정되지 않은, 본질적이고도 직관적인 지혜를 가지고, 일체의 일상성을 부정하는 기반 위에서만이 남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는 어른보다 여기에 가까울 수 있다.³¹⁾ 동자판관

31)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는 강진욱(1986), “구전설화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 총위” 서울,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59-263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에서의 동자를 어린아이로 본다면, 큰굿집단은 아이가 가진 이러한 순수성과 본질적 측면을 중시하고, 이것을 신화화하여 어린아이를 최후의 심판자로 상정했던 것이다.

강림차사본풀이신화는 강림이라는 영웅신이 원래는 이승존재였는데, 그가 어떻게 하여 저승을 갔다왔고, 다시 죽어서 저승차사가 되었나를 설명하고 있다. 저승과 이승을 오고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큰굿집단이 생각했던 바, 저승에 이르는 도정을 알 수 있고³²⁾, 또한 여기에서는 수많은 상장의례가 마련되고 있다. 강림차사본풀이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이외에도, 우리나라 신화에도 저승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에게는 저승여행 모티프를 담고 있는 신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시왕제에서 특히 저승차사인 강림을 불러 대접하고 그를 인정받은 차사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그가 죽은 사령을 데리고 갈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그를 불러 대접하면서, 그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잘 돌봐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시왕제는 인간의 死後 세계가 어떤가를 설명하면서, 죽은 인간이 가야할 곳인 저승에 있는 신들을 불러 대접하는 의례이다. 그러면서 인간사후에 저승에 있는 저옥에서 고통받지 않고 통과하기를 바라고, 저승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새롭게 다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했던 제의이다. 이 제의는 저승이 實在한다고 믿고 마련된 것이며, 인간사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다.

7. 멩갑제(방액법 창조신에 대한 의례 : 장수의 원리)

본풀이가 구연되기에 앞서 말해지고 있는 풀이 및 들어가는 말미의 내용을 참고하면, 멩갑제란 천우액년(天爲厄緣) 또는 천수액을 막기 위해서 행해졌던 제의였다. 사만이본풀이(멩갑본풀이)에 의거하면, 천수액이란 죽을 운수이고, 여기에 대한 방액법은 ① 마을 입구에 큰 상을 차려놓고, 여기에 먹을 것을 많이 놓은 후 죽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쓰고 ② 심방을 불러 대

32) 拙稿(1990), 앞의 글, pp. 52-6 참조.

시왕연맞이를 행하면서, 저승염라왕 앞으로 관대, 신, 白米, 마소 등을 바치는 것이다. ①은 死者가 될 사람을 잡아가는 저승차사가 먹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고 ②는 저승의 시왕에게 바칠 폐백 및 代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후히 대접하면, 이들은 이것을 받은 댓가로 죽어야 할 사람을 잡아가지 못하고 수명을 연장해 주게 된다.

스만이라는 신은 이러한 방액법을 써서 예정된 수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삼천년 혹은 사만년이나 살았다. 이렇게 보면 천위액년 또는 천수액을 막기 위해 행해졌다는 방액법은 정해진 수명, 곧 죽을 운수를 예방하기 위한 액막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며, 멩감제는 이러한 죽을 운수를 예방하고 오래 살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제의였음도 알 수 있다.

멩감제는 수명을 오래 누린 바, 長命의 본보기가 될만한 스만이신을 맞이하고 행했던 제의이다. 그러면서 이 신이 행했던 바의 방액법을 배워 행하여, 우리 인간도 이 신처럼 예정된 재액을 피하고, 천수를 다하여 오래 살기를 기원했던 것이다. 이것은 곧 신이 행한 바 원초적인 모범적 행위에 기원하여, 우리 인간의 의식이 마련된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만이신이 행한 천수방액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수방액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꾸면, 이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액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죽음이 임박했거나, 큰병이 들었을 때, 또는 잔병이 오래 지속되고 있을때, 단명을 예언받은 경우 등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천수방액제인 멩감제는 인간사에 있어 여러 상황에 걸쳐 액을 막기 위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멩감제는 오늘날 새해 초에 일년간의 방액을 위해서, 또는 특별한 경우에 따로 액막이용 제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이 제의가 가지는 앞서와 같은 성격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멩감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장수를 빌기 위해서 마련된 제의이다. 죽음을 예방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여 보다 장수하기를 기원하였던 이 제의

의 밑바탕에는 인간의 永生不死에의 소망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멩감제를 이런 의미로 본다면, 멩감의 뜻은 바로 수명을 오래 산 인물, 또는 신의 본보기(장명의 귀감)를 뜻함을 알 수 있다. 스만이본풀이가 멩감본풀이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하였을 것이다.

8. 세경제(농경기원신과 목축신에 대한 의례 : 농경기원의 원리)

세경제에서 모셔지는 신은 상세경인 문도령, 중세경인 자청비, 하세경인 정수남이다. 이 제의는 우리 민족, 곧 큰굿집단에게 오곡의 종자와 메밀씨 그리고 열두시만국을 처음 갖다줌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해 준 농경기원신과 목축신을 맞이하여 모시고 행하는 의례이다. 따라서 이것은 농경기원신의 업적을 기리고 감사하면서, 농경과 목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제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경제와 관련된 의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마불림제와 세경놀이이다. 마불림제는 현재 당굿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볼때 세경제와 관련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불림제란 말의 중식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세경놀이는 팽두리라는 존재의 출생부터 성장하기 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가 지은 농사가 대풍을 거두는 내용을 극적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팽두리가 최초의 농사신이란 점에서 보면, 세경놀이는 이 인물을 통해 농사에 관한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세경신에게 보여 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것은 이처럼 농사의 풍년을 한번 모의적으로 行爲化해 봄으로서, 이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며, 또 실제로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모의주술적인 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세경본풀이신화는 큰굿내의 신화 중 가장 길고 재미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농경기원신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신화는 농경신과 목축신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농경기원신에 있다. 따라서 신화내의 많은 요소들이 어떤 농경내적 원리를 함축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 잠시 살펴 보기로 하겠다.

① 농경신이 여성신인 것의 의미

세경본풀이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자청비이다. 그녀는 문도령을 따라 하늘에 올라, 하늘에 일어난 변란을 진압해 주고 그 공으로 열두시만국과 오곡 및 매밀종자를 얻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농경신이 여성신인 것은 대체로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는데, 큰굿집단 역시 이렇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과 농경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연대성은³³⁾, 애초에 농사짓는 일을 대체로 여자가 맡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성 뒤에 가로 놓여진 생산과 번식의 신비로부터 연유되었을 것이다. 농경신인 자청비가 여성이 한달에 한번 거쳐야 하는 法之法을 마렸했다는 세경본풀이 내용도 큰굿집단이 여성을 생산과 번식과 관련지어 생각했다는 흔적을 드러내 보여준다.

② 남장(男裝)과 여장(女裝)의 의미

세경본풀이에는 여자인 자청비가 남장을 하는 내용이 두번씩이나 나온다. 반면에 문도령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장, 여장의 내용은 큰굿내의 다른 신화에는 나오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여장과 남장은 각각 남성의 여성화 또는 여성의 남성화를 의미한다.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상태이며, 또 여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인 상태를 의미하는 이것은 곧 남녀양성의 내재적인 성결합상태, 즉 兩性具有的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신화나 의례의 문맥에 있어서 양성구유는 흔히 우주적 풍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인도·페르시아 등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농경제의에 있어 의복교환의 의례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하는데, 이것은 의복교환 의례가 우주적 재창조라는 의미에서 의례적 오르기와 동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³⁴⁾ 우리의 경우, 농사신에 대한 제의에서 이와 같이 남장과 여장의 모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상의 사실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우주적 풍

33) M. Eliade(1985), 「종교형태론」, 이은봉(역) p.365에도 여성과 농경사이에는 항상 연대성(Solidarity)이 있다고 하고 있다.

34) M. Eliade(1985), 앞의 책, pp.455-460 양성구유신의 신화 및 양성구유인간의 신화내용 참조.

요, 오곡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잠재적인 요소로 나타난 양성구유적 모습 또는 유사성행위적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③ 하늘로부터 가져오는 오곡의 종자

농경신인 자청비는 하늘로부터 오곡종자를 얻어 우리에게 주었다. 여기에는 곡물이란 원래 하늘에, 즉 신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사고가 잠재해 있는데 이것은 전세계의 곡물신화가 보여주는 바와 일치한다.³⁵⁾ 그러나 이것을 얻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공업 후에 이것을 획득하고 있지만, 여타의 많은 나라에서는 씨앗도둑 내지 곡물도둑의 모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한다.³⁶⁾ 얻기 힘든 곡물을 억지로 얻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것은 곡물이 신성하고 존귀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9. 칠성제(풍농신·부신에 대한 의례)

칠성본풀이를 중시하면 칠성신은 뱀이었다. 그리고 이 신이 가진 기능은 집안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데 있었다. 이렇게 보면, 칠성제는 뱀들을 신으로 관념하고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행했던 제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강남차사본풀이에 나오는 사실을 중시하면, 칠성신인 뱀은 그 색이 흰것(白蛇)으로 나타나 있다.³⁷⁾ 큰굿집단은 뱀을 색으로 분류하여 흰색은 신성한 것으로, 그리고 검은색이나 청색 뱀은 무섭고 혐오스러운 것으로³⁸⁾ 생각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칠성신의 직능은 부신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져드러앉혀살려움이 나 비념 내용을 보면³⁹⁾, 뱀인 칠성신은 오곡의 풍농을 담당했던 풍농신으로

35) 왕빈(1980), 「신화학 입문」 p. 105.

36) 왕빈(1980), 위의 책, pp. 104-5 참조.

37) 현용준(1980), 「사건」 p. 272.

38) 시왕제에 나오는 핵심곡 중 저승지옥에 독사지옥이 있는 점, 그리고 최후의 심판내용에 나오는 바 청구렁이 흑구렁이가 혐오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39) 비념이란 인간이 소원하는 바를 대상신에게 보다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비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대상신의 기능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게 된다. 앞에

도 관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열두시만국 자손에 먹을 오곡풍년 시켜추치”라든가 “보리농사 ㅁ을추곡 시만국을 만발시켜서”와 같은 부분은 이런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 다른 내용들을 참조하면 칠성신은 이처럼 풍농신적 성격을 갖고 있는 외에도 야광주 또는 생금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칠성신은 이와 같은 구슬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인간 사회에서 풍농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다.

뱀이 풍농신으로 상징될 수 있었던 것은 뱀이 가진 多産性, 물과의 상관성 및 껍질을 벗으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데서 유추된 영생불사의 관념 등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화내용을 살펴보면 뱀들의 출생에는 하늘에 있는 七星신이 관여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뱀을 칠성신이라고 부르게 되었나를 설명해 줄 근거가 된다. 칠성신의 덕으로 뱀을 출산케 한 것은 칠성신의 신성성을 빌어 뱀을 더 신성시하게 만들고자 한 신화적 발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부터 있어온 七曜에 대한 신성성을 바탕으로 행한 것이고, 이러한 七星神과의 相同性 때문에 뱀들은 칠성신이라 불리우며 보다 신성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본다.

칠성제는 풍농신인 뱀신을 맞이하여 제의를 베풀면서 오곡의 풍년을 기원하고, 나아가서는 집안이 천하의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했던 의례이다. 원래는 풍농신이었던 것이 나중에 富神 또는 업신으로까지 전이된 것은 근래 이전까지만 해도 현실 삶의 기반이 농경에 있었던 까닭에, 풍농이 곧 부를 결정했던 데서 연유한 것이다. 풍농에 대한 강한 욕구,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부에 대한 강한 욕구가 뱀을 신격화하고, 이러한 대상에게 의존함으로써 풍농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것은 풍농 및 부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했나를 시사한다 하겠다.

전상덕리신인 삼공신도 인간삶의 빈·부를 좌우하는 신이다. 그러나 이것은 풍농을 좌우함으로써 부를 가져다 준다는 칠성신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서는 본풀이만을 통해서도 대상신의 기능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비닐 내용을 따로 살피지 않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비닐속에 신의 기능이 보다 충실히 나타나 있으므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것이다. 전자는 인간의 운명상 부가 일어나게 해주는 신이며, 후자는 농경을 바탕으로 풍농을 거둬들여 집안에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전자는 그러기에 운명론적·인식론적 차원에서의 부신이라 할 수 있지만, 후자는 다분히 물리적·자연적 차원에서의 부신적 성격을 갖고 있다.

10. 성주제(집이나 성과 같은 건물의 각 곳을 지켜주는 신들에 대한 의례)

문전본풀이신화는 문신(특히 앞문이 중시됨)을 중심으로 하는 본풀이이지만, 조왕신, 측간신, 울레정쌀지신, 오방토신 등등의 본풀이도 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신화가 불리우면서 행해졌던 의례는, 부엌이나 문, 측간 같은 것이 있는 어떤 건물들의 각 곳을 지켜주는 신들을 제의하면서, 이곳 및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했던 의례였다고 볼 수 있다. 켓드리얏혀살려움에는 이들을 언급하면서, 이 신들을 가리켜 성주신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편의상 이 제의를 성주제라 한다.

성주제의 놀이였다고 할 수 있는 강태공칭합이란 의례는, 나무와 상관성을 갖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팔모의 도끼를 써서 나무를 베어내고 집과 같은 건물을 짓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강태공수목수는 성주신에게 도끼날을 검사 받는다 하고 있다. 켓드리얏혀살려움 및 이와 같은 놀이에 나타나는 바, 집과 같은 건물을 지키는 신들을 모두 성주신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신들이 원래부터 성주신으로 불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전본풀이가 불리우는 이 제의를 성주제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성주제는 집 또는 성(城)과 같은 건물내의 각 곳을 지키는 신을 불러 제의함으로써, 각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티를 없애고, 가내의 안전과 평화가 지속되기를 소망했던 제의이다. 건물 중에서는 앞문 및 조왕 즉 부엌이 가장 중시되었음이 자료에 나타나 있다.

11. 본향제(마을과 같은 일정한 지역의 수호신에 대한 의례)

본향제는 마을과 같은 일정한 지역을 수호해 주고 있는 신들을 위해 베풀었던 제의이다. 이것은 각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은 나름대로 각자 다른 수호신을 갖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마을은 서로 다른 수호신에 대한 본풀이, 즉 본향당신본풀이를 창조하여 구송하면서 이 제의를 행했던 것이다. 「사전」의 본향당리제차에는 여러 마을의 서로 다른 내용의 본향당신본풀이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모두 큰굿내에 이와 같은 본향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현상이며, 또한 동시에 이것은 큰굿내에 이러한 제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본향당신본풀이는 마을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이것은 마을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이나 또는 자연적·지리적 특수성을 담고 있을 수도 있어서 마을의 개성이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 남아 있는 당신본풀이들은, 제주도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내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제주도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따로 독립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큰굿이라는 전체를속에 하나의 개별의례 및 제차로서 본향제가 존재했던 것은, 수많은 당신본풀이를 비롯하여 부락시조신화나 마을시조신화를 형성시킨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바,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많은 신화들의 형성도 이와 관련해서 그 기원 및 특성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2. 일월조상제(한 집단의 조상신 및 수호신에 대한 의례)

일월조상제는 한 집단의 조상수호신을 제의하면서, 그 집단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번영을 기원하고자 행했던 의례이다. 서로 다른 집단이 각자 자신들의 조상신 또는 수호신을 제의했기에, 이 제의에서 불리우는 일월조상신들의 본풀이(신화) 역시 씨족이나 집단에 따라 그 내용이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월조상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전」 p. 88 〈석살림〉 및 p. 140 〈일월맞이제차〉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군웅본풀이, 선암참봉본풀이, 조상본풀이 등이 구송되었던 흔적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이 제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던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군웅본풀이가 있는 것은 이 제의 속에서 국가건국주에 대한 제의가 행해졌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조상본풀이가 있는 것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씨족 집단이 자신들의 조상신을 제의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또 선암참봉본풀이가 잔존하는 것은, 특정한 기능을 가진 집단도 이 제의속에서 자신들의 수호조상신을 모시고 제향을 베풀면서, 스스로의 안전과 행운을 빌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일월조상제는 한 집단의 조상수호신에 대한 제의였기에, 본풀이 역시 씨족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큰굿이라는 전체틀속에 하나의 개별제차로서 일월조상제가 있었던 것은 또한 수많은 조상신에 대한 본풀이를 형성시킬 수 있었던 동인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일월조상제가 큰굿제차에 있게 된 것은, 큰굿을 형성한 집단이 애초부터 인간은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들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본다.⁴⁰⁾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큰굿을 이루는 각 개별의례의 제의적 성격이었다. 특정한 기능이나 직능을 가진 대상신을 모시고 행하는 것이 전부 열두개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바, 큰굿이 열두거리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숫자면에서 일치하는 특징이 있다.

40) 조상숭배사상은 농경민족 사이에 존재했던 뚜렷한 종교형태이며, 인류보편의 가장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김두현(1969), “조상숭배의 기원” 『한국 가족제도 연구』, 서울대 출판부 pp. 574-578], 큰굿내에 존재하고 있는 일월조상제 의례도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의례라 할 수 있다. 장주근 교수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조상숭배라고 하면 대체로 유교제례의 조상숭배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으나, 원래는 유교 이외에 우리민족 본연의 조상숭배사상이 있었다고 하고, 오늘날 이것이 유교제례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 바 있다. [장주근(1983), “한국민간신앙의 조상숭배” 『문화인류학 15집』, 『한국민속 논고』(1986), pp. 206-208 참조]

「사전」을 보면 큰곳은 마지막으로 제의에 초청되어 모셔졌던 신들을 모두 제 자리에 돌려보내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송신의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초감제가 모든 신들을 청신하고 영신했던 의식이었다 한다면, 이것은 기능상 초감제와 짝이 된다 할 수 있다. 「사전」의 내용을 중시하면서, 큰곳제의를 마감하는 종합송신의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종합송신의례

「사전」에는 종합송신의례가 ① 영계돌려세움 ② 군웅만판 ③ 물놀이 ④ 도진 ⑤ 가수리 ⑥ 뒤맞이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① 영계돌려세움은 일월조상제에서 함께 모셔졌던 부모의 영신과 차사들, 그리고 이외의 영혼영신들에게 굿이 끝났음을 알리고 그들을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② 군웅만판은 제왕제석녀신몸주가 말을 타고 가는 것으로 상징하고 마부에게 말을 대령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군웅신의 배웅이 강조되고 있다. 신들은 떠나면서 정성을 바친 자손들에게 명과 재물과 자손을 번성시켜 주기를 약속한다. ③ 물놀이는 일만팔천 신들이 타고갈 말을 준비하고 그들이 말타고 떠나는 과정을 노래로 구연하는 것이다. 초감제에서는 일만팔천 신들이 지상의 오리정에 내려온 후 이곳으로부터 신청까지 말을 타고 왔었다. 물놀이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다시 말에 태워 송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놀이는 큰곳을 할 때 반드시 행해졌던 것이지만 지금은 잘 행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만큼, 점차로 소멸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의식이라 하겠다. ④ 도진은 行次도진을 말하는 것으로 신들의 행차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말을 탄 신들은 이제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여, 각각 정해진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다. 천지 천황·지황·인황부터 세경신까지는 오색구름이나 번구름을 타고 가는 것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다. 반면에 성주지신·제왕칠성·조왕신……등은 모두 그냥 자신의 지정장소로 가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지상에 머무르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⑤

가수리는 철상하기 직전 군졸들을 따로 불러 대접하는 의례이다. 이것은 낮은 계급의 군졸들을 불러모아 음식을 따로 대접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에는 투철한 계급의식 및 신분이 낮은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나타나 있다. ⑥ 뒤맞이는 가수리까지의 큰굿이 끝나고 나서 이레째 되는날(7日) 하는 것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언제 어떤 연유로 굿을 하여 언제 끝냈다는 것을 보고하고, 굿이 끝남으로 해서 본주제관이 이제 자유롭게 되었음을 고한다. 그리고 이어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굿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굿에 남아 있는 신들 모두를 불러 다시 한번 음식을 대접한다. 큰굿은 뒤맞이 의식까지를 해야 완전히 끝난다고 하는 만큼, 이 의식은 큰굿제외의 최종적인 의식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종합송신의례는 기능상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곧 큰굿 전체의 구조적 특징을 밝혀보는 것과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므로, 다음에는 이 점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a) 신들을 돌려 보낼 때는 앞의 젓다리앉혀살려움에서 맞이한 신들의 순서와 반대로 하고 있다. 즉 하위신부터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상위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b) 초감제에서 진행되는 순서를 상정하고, 이것과 꼭 반대로 송신의례의 순서를 진행하고 있다. 즉 초감제는 신들이 궁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지상과 오리정에 내려와 이곳으로부터 신청까지 말이나 가마를 타고 왔는데, 송신의례는 신청으로부터 말이나 가마를 타고 밖으로 나가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늘이나 그 외의 장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c) 뒤맞이를 통해서는 굿이 끝났음을 완벽하게 하고, 또 미참하여 대접하지 못한 신들이 한명도 없게끔 하여 신들의 원한을 살 수 있는 소지를 애초부터 없애고 있다. 이것은 신의 원한이란 두려운 것이므로, 이것을 처음부터 없이 함으로서, 신의 보살핌이 완벽하게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다.

d) 가수리에 이어 7일만에 행해지는 뒤맞이에서는 큰굿이 끝났음을 알리고 본주제관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음을 알린다고 한다. 이것은 이제 본주제관이 신들의 세계로부터 벗어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제의의 시간도 끝났음

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서의 7일간의 격리기간은 곧 제의의 시간으로부터 현실의 시간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되는 셈이며, 이것은 곧 聖의 세계로부터 俗으로의 이행기간이 되는 것이다. 베포도업침으로 인하여 聖의 시간이 되었던 제의의 시간은 이렇게 하여 다시 속적인 시간, 현실적인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e) 처음의 종합영신의례도 참석하지 못한 신들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똑같은 일을 세번 이상이나 행했다. 그런데 큰굿의 끝맺음 작업도 7일간의 정화기간까지 두고 있으며, 또 미참한 신이나 아직 가지 못한 신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들을 다시 불러 대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큰굿집단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리고 앞서와 같은 여러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큰굿집단은 큰굿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조화 시켰고, 또 이를 바탕으로 큰굿을 행했나를 알 수 있다.

IV. 큰굿의 구조적 의미

앞에서는 큰굿의 원래적 모습이었다고 생각되는 구조를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큰굿 각 개별의례의 성격을 고찰해 보았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큰굿의 순차적 구조를 중심으로 여기에 나타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큰굿이란 앞서 고찰한 것처럼 각 개별의례들의 총체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결합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어떤 인식하에서 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순차적 구조에 나타난 의미를 고찰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인식원리, 즉 큰굿형성집단이 큰굿을 구조화할 때, 어떤 인식이나 논리를 바탕으로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은 또 큰굿의 구조에 나타난 큰굿집단의 의식구조, 나아가서는 세계관을 살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큰굿의 구조에 나타난 의미는 다음의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하겠다. 큰굿은 인간 삶을 지배하거나 주관하는 대상신을 설정하고, 그

신에게 제의를 베풀면서, 인간이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기 위해 행하는 의례이다. 그런 만큼 앞에서는 제의를 행하는 현실적 목적과 관련하여 구조적 의미를 살펴 보고, 이어서는 인식론적 차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들의 위계질서와 관련하여 그 구조적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제의목적과 관례해서 본 의미

큰굿제의 중 맨앞에서 행해지는 초감제는 큰굿에서 제향되는 모든 신들을 제의되는 시·공간으로 하강하도록 하고, 또 동시에 이들을 맞이해 대접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합영신의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큰굿의 마지막에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모든 굿이 끝난 후 다시 신들을 제자리로 돌려 보내는 종합송신의례가 있었는데, 초감제를 종합영신의례라 본다면, 초감제는 이러한 마지막 송신의례와 기능상 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서 행해지는 (2)~(12) 제차들이야말로 큰굿집단이 어떤 소원하는 바를 회구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련했던 제차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무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격은 의식에서 따로 독립된 祭次를 확보하고 숭앙받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음에는 이들 열한가지 제차를 중심으로 큰굿형성집단이 현실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가장 절실하게 소원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별한 기능을 가진 대상신을 제의하는 제차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상신은 인간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출산시키는 기능을 가진 생불할당 또는 불도신이라 할 수 있는 產育神이었다. 이것은 곧 현실삶에 있어서 큰굿집단이 가장 중시했던 것이 바로 아이의 다산 및 안전출산, 그리고 안전성장과 이것을 통한 자손의 번성과 가계유지 등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이 모여 다양한 삶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의식이 필요하게 된다. 세번째 제차는 이런 의식의 발생동인, 발생과정, 집행자, 집행모습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러한 의식을 마련했던 기원적 존재들의 공업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불러 대접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의식도

잘 거행되기를 빌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의식을 巫法(巫俗)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 의식의 집행자를 巫 또는 심방(신방)이라 하고 있는데, 巫의식에 관한 내용이 큰굿 내에서 이처럼 중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의식이 당시대 인간 삶의 풍요와 안전, 장명, 복락 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 기인했다고 생각된다.

네번째 제차는 인간의 죽음 및 환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서천꽃밭을 지키는 제신들과 呪花인 생명꽃들을 제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죽음의 꽃을 계속 꺾어버리자고 하는 놀이를 통해서, 죽음을 방지하고 오래 살기를 회구했던 큰굿집단의 소망을 엿볼 수 있다. 불도제와 이공제라는 두 제차는 인간 한 평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전제인 生·死 문제를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며, 인간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오래 살기를 기원했던 제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섯번째는 모친 전상을 좇고 좋은 전상을 갖다주는 운명신적 성격을 가진 신에 대한 제의였다. 이것은 물론 인간 한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운명이 돌아와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 것이다. 전상신이 가진 기능이 특히 질병과 가난을 쫓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인간 한 평생에 걸쳐 건강하고 부자로 살기를 희망했던 인간의 본능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 신이 가진 기능이 특히 안맹과 그 퇴치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큰굿집단이 특히 안맹을 매우 두려워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섯번째 제차는 저승에 있는 시왕들을 모시고 행했던 제의였다. 인간이 죽어서 가야할 곳인 저승 세계에 있는 신들에게 제의함으로써, 살았던 인간이 죽은 후에 저승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바로 이 제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가정 위에 마련된 제의이며, 또한 죽음 후의 세계인 저승이 실재한다고 믿고서 행해졌던 것이다.

일곱번째 제차는 인간이 보다 오래 살기를 바랐던 염원이 투영된 제차이다. 단명으로 예정된 자신의 수명을 수천년, 또는 수만년 연장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는 맹감신을 제의하면서, 인간은 그 신이 행한 바의 규범을 본받

아 행하여 이 신처럼 장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여덟번째 제차인 세경제는 우리 민족에게 열두시만국과 오곡종자 및 메밀 씨를 마련해 준 농경신을 제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홉번째 제차인 풍농신에 대한 제의와 짝하여 함께 설명될 때, 제차구성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두 제차는 우리민족이 농경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유래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짓고 있는 농사가 풍년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있는 것이다.

열번째 제차는 부엌, 변소, 앞뒤의 문 등을 지키는 제신들에 대한 제의였다. 이것은 집이나 성과 같은 건물의 각 곳을 지키는 신들에게 제의함으로써, 가내의 평안과 안녕을 회구했던 것이다.

열한번째 제차는 마을과 같은 일정한 지역의 수호신에 대한 제의였는데, 이것은 이들 수호신에게 제의를 베풀면서, 한 지역이 편안하고 잘 되기를 빌었던 제의였다고 할 수 있다.

열두번째 제차는 한 집단의 조상신이나 수호신에 대한 제의였는데, 이것은 혈연집단, 즉 씨족집단의 조상신 및 기능집단의 수호신에 대한 제의를 베풀면서 이들 집단의 招福과 안녕을 기원했던 것이었다.

큰굿 개별의례의 성격을 이상과 같이 간단히 요약해 보면, 구조적 특징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두번째부터 일곱번째 제차까지는 인간 한평생에 걸쳐 있는 문제인 생, 사, 사후의 일에 관여하는 신들과 또한 살아가는 도중의 운명이나 長命과 관계된 신들에 대한 의례인 것이다. 이들 제의는 자식을 잘 낳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원하며, 나아가서는 인간 한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그리고 장수할 수 있기를 회구하고, 사후에는 저승의 좋은 마을에서 다시 잘 살기를 바라면서 행해졌던 것이다. 곧 개인들의 한 평생을 문제삼고 있는 제차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다 큰굿집단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소원하는 소망을 투영시켰다.

인간 한 평생의 원론적인 문제에 이어서는 농경에 관여된 신들이 제향되고 있다. 이것은 현실삶과 관련지어 볼 때, 큰굿집단이 가졌었던 제일 큰

관심사가 농경과 풍농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 삶의 행복은 일단은 먼저 건강과 식량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데, 식량의 증감은 농사 및 풍농과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食문제와 결부된 농경신과 목축신 그리고 풍농신에 대한 제의는 그 어느 것 보다도 그들 삶 및 제의와 직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생사에 관한 원론적인 문제에 이어 농경신과 풍농신이 제의되었다는 것은 큰굿형성집단의 삶의 기반이 농경에 있었다는 것과, 또 큰굿이 형성된 시기가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체계를 식물체계에 비유해서 생각했었던 것까지 포함시키면⁴¹⁾ 이것은 농경의 매우 이른시기였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열번째와 열한번째 제차는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전물을 지키는 신 및 일정한 거주공간을 지키는 수호신에 대한 제차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식문제에 이어 주거문제를 관심사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계속 집단적인 문제를 중시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열두번째 제차는 그들 삶을 본원적으로 가능하게 해 준 조상신들을 중시했다는 점 및 혈통이나 가계를 중시한 것, 그리고 집단의식을 강조했다라는 것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한 집단의 죽은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도 함께 제의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큰굿이 형성될 당시에 우리 민족은 이미 조상숭배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는 큰굿집단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큰굿을 거행했나와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개별의례를 어떻게 구조화했는가를 살펴 보았다. 결과로 큰굿집단은 아이의 안전출산과 다산, 장수, 행운, 복락, 저승에서의 재생, 건강, 풍농, 한집안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큰굿을 거행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큰굿을 행하는 제의적 목적과 관련지으면, 큰굿의 구조 및 내용은

41) 拙稿(1989), 앞의 글 pp.186-204 참조.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들을 분석해 보면, 큰굿을 형성한 집단은 인간의 생명체계를 식물체계에 투입어 생각했음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농경사회의 매우 초기에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일 수 있다고 본다.

대체로 인류 보편적인 현실적 소망을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측면을 토대로 하고, 뒷부분에는 주로 공동체적 기반을 중심으로 했다는 독자성이 있다. 그리고 큰굿의 내용을 앞서와 같이 보면, 이것은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속의 본질적 속성, 즉 무속이란 인간의 현실적 삶을 증시하고 현실의 복락을 회구하는 종교라는 점과 일치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구조적 원리에 따라 재구해 본 큰굿의 구조는 앞서와 같이 우리의 현실 삶과 밀접한 기능을 가진 대상신들을 제의하는 개별의례가 열한 개 있었다. 그런데 맨 앞에서 행해졌던 초감제는 종합영신의례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창세신들의 공업을 기리운다는 제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큰굿속에는 각기 다른 기능이나 직능을 가진 대상신에 대한 의례가 전부 열두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바 우리 민족이 아득한 옛날에 보유했었다는 큰굿 열두거리와 그 숫자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식론적 측면에서 본 의미

초감제에서 불리우는 베포도업침은 제의되는 곳을 하강할 신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시간과 장소가 마련된 유래를 읊는다는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었나를 설명하고, 해명해 주는 의의를 가지는 신화이다. 우주의 창생원리 및 최초의 생명기원을 밝혀주는 이 신화를 큰굿의 맨 앞쪽에서 구송하도록 만든 것은, 이 상황을 가장 원론적인 것으로 보고, 큰굿집단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맨앞에 오도록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제일의 관심사가 현존하는 세계의 제현상에 대한 본원적인 해명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우주적 문제를 다룸에 이어서는 인간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출산시키는 신에 대한 본풀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우주적 차원에 이어 인간 및 인간생명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다는 것을 입증한다. 천지가 개벽되고 난 후, 인간

생명이 뒤이어 생겨났다는 것도⁴²⁾ 이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인간의 일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아이가 잉태되고 탄생된데 대한 신비감을 해명해 보고자 했던 것이 불도제가 마련된 근본사고이다. 인간의 죽음과 환생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는 의례를 네번째에 둔 것은, 두번째 제차에서 인간생명의 탄생원리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과 기능상 짝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큰굿형성집단이 가졌었던 본질적인 관심이 인간의 생과 사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초공본풀이신화 내용을 증시하면 巫法의 시작은 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또 최초의 강신무인 유정승마님 얘기가 처음으로 한 일도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일이었다. 이것은 巫의 본질적 목적을 인간의 생사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큰굿의 특히 앞부분에 있는 제차가 인간의 생사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무속이 가진 바 이런 관심과 일치한다.

큰굿형성집단이 인간의 生死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것은 여러 신화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서천꽃밭’과 ‘생명꽃’ 내용을 통해서도 추론될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체제를 식물체제에 비유하여 생각하는 독특한 신화적 사고를 기초로 서천꽃밭이라는 매우 독특한 신화적 공간을 창조해 냈다. 이곳은 앞에서도 살펴 본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잉태시킬 수도 있고, 죽게도 할 수 있으며, 또 죽은 목숨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는 呪花들이 피어 있는 장소이다. 그런데 큰굿집단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의경심을 갖고, 이것을 해명해 보고자 이러한 생명공간을 창조해낸 것이다. 서천꽃밭은 생불할망본풀이・이공본풀이・시왕맞이속의 해심곡・세경본풀이・문전본풀이 등 큰굿내의 많은 신화속에 공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신화들이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서, 이들이 동일집단에 의해 동시대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큰굿형성집단이 인간의 생사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나를 표명하고 있

42) 이 내용은 본고에서는 아직 고찰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 자료의 베로 도입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큰굿집단은 천지가 개벽되고 난 후 물이 생기고 이어서는 인간 및 수많은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으로 인식했음이 드러나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별고를 통해 발표하기로 한다.

기도 한 것이다.

큰굿형성집단이 가졌었던 본질적인 관심은 인간 삶의 존재론적 층위에 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생사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후 나타난 것이 바로 인간 한 평생의 운명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를 입증한다. 한 평생의 삶에 있어서는 특히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중시했고 또 광명한 천지를 밝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開眼된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흔적이 있다. 개안과 안맹에 대한 내용은 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칠성본풀이의 세신화에나 나오는 만큼, 이들 motif는 무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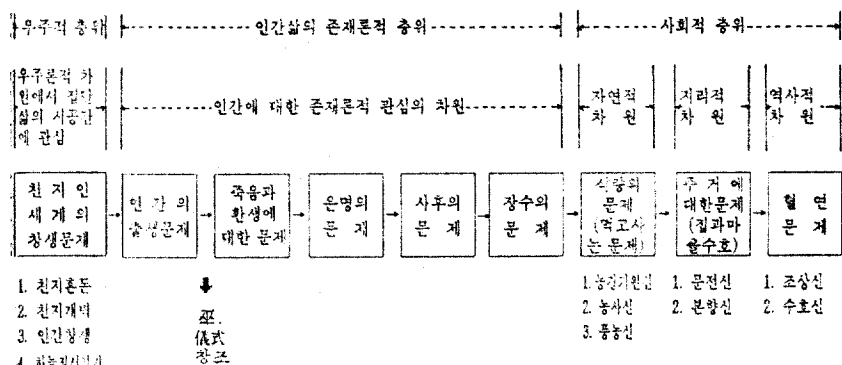
여섯번째 제차가 시왕제로 나타난 것도 큰굿집단이 인간 삶의 존재적 차원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나를 반영하고 있다. 인간은 죽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사후의 문제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 태어나는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生쥘시의 잘 살고 못 사는 문제에 이어 죽음후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들 집단이 인간의 일생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생각했었나를 알게 해준다. 죽음후의 세계는 이들 무속집단이 가졌었던 상상의 세계라는 특징이 있지만, 또한편 이들은 사후공간으로서 저승이 실체한다고 믿고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다.

생사에 대한 집중된 관심은, 生부터 사후세계를 맡고 있는 신들을 차례로 배열한 후, 보다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의내용으로 하는 의례를 끝의 순서에 놓도록 하였다. 멩감제는 바로 이런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상은 생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던 제의가 된다. 큰굿은 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나아가서는 주거문제 및 혈연문제를 다루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큰굿은 바로 다음[그림 1]과 같은 인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을 보면, 큰굿의 구조는 우주적 차원에 대한 관심으로 부터 개인적·

43) 오늘날의 무속사회를 보면, 무경을 읊고 있는 것은 특히 장님이 많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어쩌면 무속의 기원적 사실과 관련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림 1] 인식론적 측면에서 본 큰곳의 구조

존재론적 차원으로, 그리고 다시 공동체적·현실적(물리적)차원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큰곳은 이러한 구조상의 특징 이외에 다음과 같은 구성상의 특성도 함께 갖추고 있는데, 이와같은 특징은 큰곳의 독자적이며 독창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큰곳의 마지막 두 제차는 본향제와 일월조상제였다. 이 중 본향제는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일정한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대한 제의였고, 일월조상제는 혈연집단 및 기능집단을 중심으로 그 집단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조상수호신에 대한 제의였다. 그런데 이 두 제차가 큰곳의 마지막 개별의례로 되어 있는 것이 정말로 매우 놀라운 일인 것이다. 이것은 제의가 어떤 곳에서, 어느집단에 의해서 행해지건 간에 구조적인 변함이 없이 큰곳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각 집단들은 각기 그들이 믿고 있는 수호신이나 조상신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본풀이나 신화내용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큰곳형성집단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마지막 두제차에 이것을 둬으로써, 서로 다른 집단이 각자 큰곳을 하더라도 자유자재로 내용을 바꿔가며 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이처럼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일월조상제에 많은 조상본풀이가 남아 있는 것이나 본향제에 있어 많은 당신본풀이가 남아 있

는 것은, 모두 이러한 큰굿의 구조적 특질 및 오랜 역사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큰굿은 구성상, 구조적인 변용성과 가변성을 둠으로써 어떤 집단에 의해서, 또 어느 곳에서라도 제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진 것이다. 고정성을 강조하지 않고 융통성을 둠으로써 큰굿이란 제의는 마을에 따라 집단에 따라 자유자재로 특성을 살리면서 개별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큰굿이 가진 구조적 독창성이라 할 수 있으며, 생명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본다. 개별의례를 구조화하여 큰굿이라는 하나의 제의양식을 구성할 때, 큰굿집단이 얼마나 원론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이 일을 행했나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보다 더이상 체계적으로 제차를 구성하려 해도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큰굿에는 천지 창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출생, 의식발생, 인간의 죽음 및 환생, 운명의 문제, 사후의 문제, 장수의 문제, 농경의 기원과 풍농, 마을이나 일족의 조상수호신에 대한 신화들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큰굿집단이 가졌었던 바의 의식구조적 차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큰굿은 전세계에 보편하는 여러 중요한 성격의 신화들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큰굿 및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은 새삼 중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신들의 위계질서와 구조적 의미

큰굿집단은 신들이라 해도 다 똑같은 신이 아니고, 신들 사이에도 위계질서가 있다고 상정했다. 이것은 앞서 살펴 본바의 젓대리앉혀살려움에 분명히 나타나 있었다. 다음에는 이러한 위계질서에다 대상신들의 기능을 적용하여, 큰굿집단이 상위개념으로 생각했었던 신들과 하위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신들이 어떻게 다른 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표 1·2]의 내용을 참조하면 이 의미는 보다 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이것도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한다.

도표에는 [1]에 천지천왕~절차지신, 그리고 인간생불차지신과 얼굴차자마마신이 있었고 [2]에는 초공·이공·삼공신 [3]에는 시왕·맹감 [4]에는

세경·칠성신, 그리고 [5]에는 성주신·본향신·일월조상신 및 영계영공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장 상위신은 우주의 창조에 기여했던 신들과 자연물인 산이나 물을 차지하는 신, 그리고 기존의 인간사회의 제문화를 마련해 준 신들이었다. 절을 차지하는 신도 상위권에 있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1]에서 이들 천지창조신이나 자연물을 차지하는 신들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생불신이다. 이것은 큰곳집단이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 내는 생불신을, 인간사의 일을 관장하는 신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생각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생사문제를 가장 중시했기에 그들은 인간을 탄생시키는 신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여 상위권의 신으로 설정해 놓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무조신부터 초공이라고 명명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초’를 ‘처음’이란 뜻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이 신부터 새로운 차원의 신으로 관념했기에 이렇게 이름지어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순차적으로 이공~삼공신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들은 대개 같은 차원의 신들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왕은 죽음후의 세계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신들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구별하였다. 맹감신도 생사문제와 관련된 신이므로 같은 차원으로 인식되었다고 생각된다.

능경신과 풍농신은 함께 묶여서 따로 구별되고 존재론적·인식론적 문제를 다루는 앞서의 신들보다는 차원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그런데 성주신·본향신·일월조상신들은 차원이 또 다르다. 이들은 앞서의 신들보다 더 하위로 관념되었다. 이들은 인간이 사는 지역, 또는 집단을 중심으로 신격화된 존재이며, 이들의 거주처는 인간이 사는 집이나 堂, 또는 집안의 어디엔가였다. 따라서 이들은 하늘에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다른 신들보다 하위적으로 인식되어 졌다고 본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는 조상신들로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이들은 죽은 인간이 변하여 된 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되어진 것이다.

천지가 창생될 때 관여한 신은 최상위에 놓고, 인간이 죽어서 된 신은 최하위의 반열에 놓는 사고체계는 큰곳형성집단의 사고가 매우 논리적이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몸담고 있는 천지자연을 맡고 있는 신은 최상위의 신이며, 일개 집단의 거주지역을 맡고 있는 신은 하위반열에 놓은 것도 그들의 사고가 매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무속에는 신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연구되어 왔다.⁴⁴⁾ 그러나 앞서와 같이 보면 무속집단은 신들을 위계질서가 있는 것으로 사고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도 매우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했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큰굿을 창조했고 그것을 집행해온 것은 바로 우리민족이라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우리민족 역시 많은 신들을 상정했고, 그들을 위계질서가 있는 것으로 사고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V 큰굿의 문화사적 位相

앞에서는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큰굿을 채록해 놓은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이것을 내재적인 구성원리에 맞추어 큰굿의 원래적 모습이었다고 생각되는 모습으로 재구성해 놓고, 이것의 성격이나 구조적 특질을 밝혀 보았다. 결과로 이것은 특정한 대상신을 모시고 행하는 의례가 열두개 있었고, 이들의 순차적 구조는 제의의 목적면에서나 인식론적 측면에서 볼 때나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큰굿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주도에서 자연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토에서 이입 수용된 것이다. 제주도의 큰굿이 가진 위상을 이렇게 논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역으로 제주도의 큰굿을 연구한 결과가 매우 논리적이고 어떤 체계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것을 본토로 되돌릴 수

44) 서대석(1984), “무속과 민중사상” 『대동문화연구총서 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505를 참조하면, 그간 학계에서는 무속에 나오는 신들은, 신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한다. [임석재(1970), “한국무속연구서설(1)” 『아세아여성연구 9』, pp.80-89 및 김인희(1979), “무속과 교육철학”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문음사. p.89] 그러나 이렇게 보면 우리 민족은 신들을 위계 질서가 있는 것으로 사고했음이 드러난다.

있다는 결론을 도출시킨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본고에서 재구해 본 큰굿을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민족이 보유해 왔다는 큰굿 열두거리의 본래적 모습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본고가 재구해 본 큰굿의 위상을 이렇게 보는 것은 앞서의 사정의에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가 더 있다.

첫째는,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바 큰굿이 열두거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숫자면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개별 의례의 성격이나 구조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성이 있으며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배포도엮침과 같은 천지창조(생) 신화나 해와 달이 조정되는 내용, 그리고 농경기원신화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이튼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큰굿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형성이 매우 이튼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실제로 큰굿내의 신화에는 수많은 고태성이 있어,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몇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天父地母神의 관념, 지모신과 곡모신을 겸하는 여신적 관념, 여성원리강조,⁴⁵⁾ 쌍둥이에 대한 신성관념, 뱀을 신으로 관념할 수 있는 인식체계, 인간의 생명체계를 식물의 생명체계에 비유해서 생각하고 대지를 인간생명의 본원으로 생각하는 인식체계 등등. 이렇게 보면, 이러한 인식들을 담고 있는 신화를 포함하고 있는 큰굿은 비교적 이튼시기에 형성되었고 또 제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큰굿내에 나오는 많은 신화들은 생명꽃 및 서천꽃밭을 공통분모로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신화들이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들이 동시대에 동일집단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면,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큰굿 및 재구해 본 큰굿은 개별의례가 서로 다른 시기에 적층된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함께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므로 이들은 하나의 통합구조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공본풀이가 본토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 한다면, 나머지도 본토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네째, 큰굿속에 나오는 신화들의 내용이 본토에서는 무가속에 잔존해 있

45) 拙稿(1989), 앞의 글. pp. 205-228 참조.

거나 아니면 전설이나 민담으로 광포해 있고, 혹은 소설로도 변모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큰굿 개별의례의 대상신의 성격이나 기능은 민간신앙화 되어 민속에 살아 남아 있다.⁴⁶⁾ 고대의 제의와 관련된 신화들은 그 민족의 문화를 형성하는 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⁴⁷⁾ 이것은 곧 고대의 우리민족에 이와 같은 제의 또는 신화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본토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큰굿이나 신화같은 것들이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게 되며, 현재 본토에서는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는데 반해, 제주도는 섬이기에 고문화가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섬에는 古文化가 잔존한다는 일반적인 학설을 증시한다면, 제주도에 우리민족이 보유했었던 큰굿의 본래적 모습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은 것이다. 그 위에 제주도는 무속이 생활과 밀착되어 있어 신화구연의 기회가 많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또 세습무가 많다고 하는 것 및 신(내림)굿 시에 심방의 제의언어가 대황수들에 의해 엄격히 심사받고 규제되었다는 것도⁴⁸⁾ 이들 신화들의 내용이 원래 모습대로 유지되고 지탱되어 올 수 있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큰굿은 제의였다는 점에서 보수성이 강했을 것인데, 앞서와 같은 모든 상황은 제주도 큰굿으로 하여금 비교적 고형을 유지해 오도록 했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던 제주도의 큰굿은 얼마든지 고형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제주도의 무속이 비교적 古形일 것이라는 학설은 그간에도 있어 왔다.⁴⁹⁾ 본고는 이와같은 학설을 증시하고, 제주도 큰굿 및 재구해 본 큰굿에 나타나

46) 이러한 상관관계는 아직은 논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토의 자료를 검토해 볼때 이와 같은 결과는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별고를 통하여 논증하겠다.

47) 왕빈(1980), 앞의 책, p. 30.

말리노프스키는 신화가 문화력을 형성하는 것이라 했다.

48) 현용준(1986), 「제주도 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pp. 40-58, pp. 88-125.

49) 장주근(1986), “고대한일양국의 민간신앙” 「한국민속논고」 p. 99.

조동일(1984), 「한국문화통사」 3, 서울, 지식산업사. p. 518.

는 앞서와 같은 제특징과 속성을 고려하여, 재구해 본 큰굿이야말로 우리 민족 고유의 큰굿 바로 그것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큰굿은 오랜 세월을 통해 전승되어 오는 동안 비록 내용상으로는 외래적인 요소를 습합하고 의식의 순서는 변모되어 있지만, 고대적 제의양태인 큰굿의 본래적 모습을 아직도 아주 많이 지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큰굿은, 이렇게 보면, 매우 고형적인 문화의 잔존물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큰굿은 상당히 중요한 민족적·문화적 유산이라 할 수 있으며, 또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무속의 실체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우선적인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주도 큰굿 및 재구해 본 큰굿의 위상을 이상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면, 큰굿내에 나오는 많은 신화들은 우리 문학상에 있어 소재적 원천이 되었고, 또 문학내적 요소로서의 서사소들을 형성시켰던 모태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민족도 세계에 보편하는 다양한 신화들을 갖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Ⅶ. 맺 음 말

현재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속의례 중의 하나인 큰굿은, 그속에 문화사적·문학사적으로 중시될만 하고, 또 마땅히 중시되어야만 할 많은 신화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신화와 제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면, 이들 신화들의 위상과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신화를 내포하고 있는 무속제의인 큰굿의 위상이나 의의가 밝혀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제주도 큰굿의 본질적 성격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 제주도 큰굿 및 신화가 갖는 위상을 추론하고자 했는데,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하는 제주도 큰굿을 채록해 놓은 자료를 보면 큰굿의 순서에는 체계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의식이란 어떤 체계성이 있기 마련이라는 점을 감

안하면, 이것은 큰굿이 민중과 호흡하며 전승되어 오는 동안 원래적 모습으로부터 약간 변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은 큰굿을 구성하는 내재적이고도 구조적인 원리에 따라 그 순서가 원래적인 것으로 재구될 필요가 있다. Ⅱ장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큰굿의 개별의례는 각기 다른 직능을 가진 대상신을 제향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의례에는 반드시 그 대상신의 내력담인 신화(본풀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큰굿내에서 불리우고 있는 본풀이들의 종류와 성격을 살피고, 이것을 큰굿에서 모셔지는 신들의 위계질서에 대입시켜 큰굿 개별의례의 순서를 추정해 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로 큰굿 개별의례의 순서는 <1> 초감제 <2> 불도제 <3> 초공제 <4> 이공제 <5> 삼공제 <6> 시왕제 <7> 멩감제 <8> 세경제 <9> 칠성제 <10> 성주제 <11> 본향제 <12> 일월조상제로 되어 있었고, 이중 어디에선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있지 않았나 한다.

Ⅲ장은 Ⅱ장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각 개별의례의 제의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초감제]는 큰굿에서 모시는 수많은 신들을 종합적으로 맞이하는 신탁의의식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고 문화를 마련해준 창세신들의 공업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들이 하강할 시·공간을 알려 주기 위해 그것이 마련되는 기원적 사실부터 언급하고 있으므로, 천지창조(생) 신화가 나타나고 있다. [불도제]는 아이를 產育시키는 생불신에 관한 제의인데 이 신과 함께 아이의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신과 마마신이 제향되고 있다. 인간의 출생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生의 문제를 다룬 제의이다. [초공제]는 巫祖神들에 대한 제의이다. 의식을 담당하는 심방(巫)들이 자신들의 시원적 조상들을 제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공제]는 인간을 죽게 할 수도 있고 환생시킬 수도 있는 呪花인 생명꽃을 지키고 있는 서천꽃밭의 주화관장신에 대해 베푸는 제의이다. 인간의 죽음 및 환생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어 있다. [삼공제]는 인간 한 평생의 삶의 과정을 문제삼고, 인간삶의 행·불행을 맡고 있는 전상신, 즉 운명신에 대해 베풀었던 의례이다. [시왕제]는 사후의 세계에 있는 저승에 있는 시왕들을 모시고 행하는 제의였다. 이것은 저승세계가 실재한다고 믿고, 그곳에서 재생할 수 있기를 기

원하면서 행했던 제의이다. [맹감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오래살 수 있도록 방액법을 창조해준 장수신에 대한 의례이다. 이것은 장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제의였다. [세경제]는 우리에게 오곡의 종자와 메밀씨, 그리고 열두시 만국을 가져다 주어 우리민족으로 하여금 농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농경신에 대한 제의인데, 여기에서는 목축신도 함께 제의되고 있다. [칠성제]는 풍농을 담당하고 있는 풍농신에 대한 제의인데, 이신은 뱀[白蛇]으로 되어 있다. 이 신이 또한 富神으로도 상징되고 있는 것은, 농업사회에서는 부가 곧 풍농과 관련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주제]는 집이나 성과 같은 건물의 각 곳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대한 제의이고, [본향제]는 마을과 같은 일정한 특정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에 대한 제의였다. 그리고 [일월조상제]는 한 집단의 조상신이나 수호신을 제의하는 의례이다. 이상과 같은 의례가 진행되는 어디에선가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었던 듯하며, 이러한 개별의례가 전부 끝나면 마지막으로 모든 신들을 제자리에 돌려 보내는 종합적인 송신의 의식이 거행된다.

Ⅳ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개별의례의 성격을 근거로, 큰굿의 구조에 나타난 의미를 추출해 보았다. 결과로 큰굿의 구성은 우주적 차원에 대한 관심에 이어, 인간 삶의 존재론적 차원에 대하여, 그리고 이어서는 먹고사는 문제(食), 주거공간에 대한 문제를 관심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들 삶을 본원적으로 가능하게 해 준 조상들과 혈통 및 가계를 중시해서 짜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큰굿은 인간의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多産 및 한평생의 복락, 건강, 부귀, 장수, 저승에서의 재생, 풍농, 주거지역 및 씨족집단의 안녕을 위해서 제의되었던 것임도 알 수 있었다. 큰굿집단은 우주적 차원의 신들을 가장 上位神으로 생각했고, 이어서는 인간 삶의 존재론적 차원에 관한 신들을, 그리고 농경에 관한 신들에 이어 주거지역에 관여하는 신들을 그 다음 순위로 인식했다. 인간이 죽어서 된 조상신들은 최하위신으로 생각했었던 것을 통해서도 그 인식체계가 매우 논리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V장에서는 앞서와 같은 큰굿의 구조적 체계성을 비롯, 그 이외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큰굿이 가지는 바 우리 문화에 있어서의 문화사적 위상을 추론했다. 재구해 본 큰굿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민족이 아득한 옛날부터 행해 왔었다는 큰굿의 본래적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화의 잔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 큰굿은 매우 귀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은 우리 문학상 소재적 원천이 되었고 문학내적 요소인 서사소들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보면 우리 민족도 세계에 보편하는 수많은 신화들을 갖고 있는 민족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신화들과 본토에 남아 있는 자료들과의 상관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본토에 있어서의 큰굿의 형성시기가 대충이라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 논문후기 : 본 논문은 필자의 학위 논문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1989, 이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위에 “무속신화 「지장본풀이」의 제의적 기능과 의의”(1988, 강운호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이화어문논집 10집)의 요지를 첨가한 것이다. 학위논문에서는 큰굿내의 신화들에 나타나는 제특징을 좀더 고찰했으나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제외하였다. 이유는 이번에는 큰굿의 구조적 특질을 밝히는 것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큰굿 및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의 특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학위논문속에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참고한 문헌 역시 이 속에 길고 자세하게 언급했기에 여기에서 다시 이것을 적는 일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본 연구는 그간 장기간에 걸쳐 제주도 무속자료를 채록·보고·연구해 주신 선학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사전」자료를 출판해 주신 선생님 및 기타 여러 선학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로 드린다.